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존 키츠의 송시에 나타난
상상력과 미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 始 炫

2016年 8月

존 키츠의 송시에 나타난 상상력과 미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許 允 德

金 始 炫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6月

金始炫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6年 8月

<국문초록>

존 키츠의 송시에 나타난 상상력과 미에 관한 연구

金 始 炫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指導教授 許 允 德

John Keats(1795-1821)는 영국 낭만주의 후기 시인으로 다른 낭만파 시인들과 공통적으로 상상력을 시적 요소로 선택하는데 키츠의 상상력은 그만의 독특한 개념인 “받아들이는 힘”(Negative Capability)이라 불린다. 이는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가능한 것으로 모든 사물에서 미를 포착할 수 있는 힘인 동시에 아름다운 대상에서 진리를 찾아 시로 읊기는 능력이다. 키츠는 자신의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내적 세계의 성장의 근간과 “시란 미로 써져야 하며 자연스럽게 써져야 한다.”는 시적 원리에 대해 언급한다. 즉, 끊임없는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미의 세계로 승화하고 이것을 영혼 형성의 구원 수단으로 삼는 키츠에게 미는 영원한 추구의 대상이자 영원한 기쁨이다. 따라서 상상력을 통해 느끼는 미는 진리가 되며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삶의 쉽터가 되어주어 실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키츠에게 있어 상상력과 미의 개념과 더불어 행복의 개념도 중요한데 키츠가 생각하는 행복은 상상력이 진리를 향해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키츠는 상상력을 통해 정신세계를 확대시킴으로써 미와 진리와 사랑이 인간의 영혼 속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함을 노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키츠의 송시에 나타난 “받아들이는 힘”과 미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프시케에 부치는 송시」에서는 키츠가 자신의 내적 성장의 근간을 노래하며, 그 다음으로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송시」와 「그리스 항아리에 부치는 송시」에서 영원한 미가 존재하는 이상세계는 오히려 현실의 고통을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세계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노래한다. 즉, 키츠는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가치에 머물며 그러한 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나 사물에 내재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미임을 깨닫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미를 추구하여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고자 한다. 이어서 「우수에 부치는 송시」와 「가을에게」를 통해 인간의 삶에는 행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우울과 소멸도 존재하는 삶의 이원적 요소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키츠는 현실세계의 고통을 삶의 순환 과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유한한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결론적으로 미를 제외하고 영원한 것은 없음을 주장하는 키츠는 다섯 편의 송시에서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모든 사물에서 미를 포착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깨달아 슬픔과 고통은 아름다운 것과 불가분한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키츠는 인간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견디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모든 사물에서 포착한 영원한 미임을 전달 하며 삶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본 논문은 201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

I. 서론	1
II. 키츠의 시론	4
III. 송시에 나타난 Negative Capability와 미의 양상	16
1. 「프시케에 부치는 송시」: 비움과 상상의 힘	16
2.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송시」: 이상과 현실	25
3. 「그리스 항아리에 부치는 송시」: 미와 진리	36
4. 「우수에 부치는 송시」: 슬픔과 기쁨	45
5. 「가을에게」: 충만과 공허	51
IV. 결론	57
참고 문헌	60
Abstract	63

I. 서론

존 키츠(John Keats, 1795-1821)는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4년의 짧은 시작 활동기간(1817-1820)에도 불구하고 작품들이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벤들러(Helen Vendler)는 키츠에 대한 비평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는데¹⁾, 첫 번째는 게라드(H. W. Garrod), 로웰(Amy Lowell), 브룩크(Stopford A. Brooke)의 경우로 키츠를 감각적이고 화려하며 미의 문제에 관심을 둔 시인으로 본다. 두 번째는 머리(John Middleton Murry), 베이트(W. J. Bate), 부시(Douglas Bush), 스틸링저(Jack Stillinger)의 경우로 키츠를 현실 속에서 겪는 갈등과 고통을 시 속에 담아 내려고 한 시인으로 설명한다. 이들 중 특히 베이트는 키츠만큼 예술 작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지닌 시인은 없으며, 키츠를 짧은 시작 기간에도 불구하고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평가한다.²⁾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작가들은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며 가장 활력적인 인간의 정신 활동을 상상력이라 보고 상상력을 통해 꿈과 이상에 대한 인간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다. 상상력은 18세기의 신고전주의 작가들과 영국의 낭만주의 작가들을 구별 짓는 중요한 특징으로 가시적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세계의 본질을 투시하게 해주는 가장 신성한 인간의 능력이다. 키츠는 1817년 베일리(Benjamin Bailey)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상상력을 아담의 꿈에 비유하며 아담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듯이,³⁾ 그의 많은 시에서도 꿈(Dreaming)과 깨어남(Waking)이 교차하는 상황을 묘사하며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에 대한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즉, 키츠의 상상력은 시인을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게 만들어 모든 사물에서 미를 포착할 수 있게 하는 힘이며 동시에 아름다운 대상에서 진리를 찾아내 시로 옮기는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을 “받아들이는 힘”(Negative Capability)⁴⁾이라 규정한다.

1) Helen Vendler, *The Odes of John Keats* (Cambridge: Harvard UP, 1983), pp. 3-14.

2) W. Jackson Bate, *John Keats* (Cambridge, Mass.: Harvard UP, 1979), p. 3.

3) John Keats, *Letters of John Keats to His Family and Friends*, ed. Sidney Colvin (London: Macmillan, 1891), p. 45.

본고에서는 키츠의 편지들을 위 책에서 인용하고 *Letters*로 약해서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만 밝히겠음

미의 개념에 있어서도 키츠는 현실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극복한 후에 얻는 미를 가장 최고의 미라고 여긴다. 즉, 인간에 관한 깊은 사색을 통해 추상적인 미가 아닌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실체적이고 인간적인 미를 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키츠는 현실세계의 인간의 고통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상상력과 미를 통하여 고통스러운 현실세계로부터의 탈출구를 모색한다. 키츠가 유독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어린 시절 가난과 부모의 사망, 동생의 죽음, 또한 자신도 병마에 시달리는 등의 불행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키츠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시련과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아름다운 시 세계를 이루고자 예술적 증진에 힘써 왔다. 따라서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환희와 우울함 등 인생의 밝음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에서 고통을 덜어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 고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고심은 초기 시인 『잠과 시』(*Sleep and Poetry*)에 드러난다. 이 시에서는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데 시를 쓰는 위대한 목적은 그것이 인간의 사고를 고양시키며 인간의 감정을 매만져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the great end/Of Poesy, that it should be a friend/To soothe the cares and lift the thoughts of man⁵⁾). 이와 같이 키츠는 주로 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에서 위안을 구하고자 했으며 따라서 그의 시는 자아와 현실세계에서 오는 고통에서 숨어들고자 하는 일종의 안식처이다.⁶⁾ 또한 키츠의 마음이 항상 향해 있던 것은 위대한 인간의 목적, 즉 위대한 시를 써내는 일이었으며 위대한 시란 세상의 고통과 좌절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우려해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⁷⁾ 이처럼 키츠는 현실의 고뇌와 역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작품 속에서 현실세계와 직면하여 이것들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그려낸다. 다시 말해 키츠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고통들을 시의 주제로 삼는다. 또한 순간과

4) "Negative Capability"는 역자에 따라 <부정적 수용력>, <소극적 수용력>, <받아들이는 힘>, <받아들이는 능력>, <마음을 비우는 능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받아들이는 힘>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5) Miriam Allot, ed, *John Keats: The Complete Poems* (London: Longman, 1986), p. 80. L:245-247

*본문에서 다루는 모든 시는 이 책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시의 연과 행수만을 표시하겠음.

6) Morris Dickstein, *Keats and His Poetry: A Study in Development* (Chicago and London: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4), p. 204.

7) John Middleton Murry, *Keats and Shakespeare* (London: Oxford UP, 1925), p. 68.

영원, 고통과 즐거움, 행복과 불행을 조화시킴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여 극복한 후에 얻게 되는 영원한 미를 진리라고 여긴다. 보통 진리라 함은 상식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키츠가 말하는 진리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순간이 진리이며,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진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키츠는 기쁨과 환희,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였고 상상력만이 진리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규정한다.

제 2장에서는 키츠의 시론이라 할 수 있는 상상력과 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시와 편지에서 키츠가 직접 언급한 상상력과 미, 행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키츠가 이 세상을 영혼 형성의 골짜기로 설명한 이유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상상력을 통해 현실세계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미와 진리를 탐색한 방안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시인이 추구한 상상력과 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시케에 부치는 송시」("Ode to Psyche"),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송시」("Ode to Nightingale"), 「그리스 항아리에 부치는 송시」("Ode to a Grecian Urn"), 「우수에 부치는 송시」("Ode to Melancholy"), 「가을에게」("To Autumn") 이상 다섯 편의 송시를 감상할 것이다. 키츠의 송시는 영국 낭만주의 문학의 중심이며, 키츠의 정신적인 삶의 승리를 이루었을 때 쓴 작품이다. 그는 어린 시절 불우했던 환경과 고통, 슬픔과 불행, 억압과 분노 등을 상상력을 통해 극복하여 행복과 기쁨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후기에 창작된 송시들은 이러한 키츠의 내면적 발전이 밖으로 드러난 양상을 보여주는 시인의 내적 성숙이 완성된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⁸⁾ 따라서 키츠의 송시에서 고통과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찬 현실에서 어떤 극복 과정을 거쳐 미가 진리로 발전해 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불행과 고통을 느끼는 현실의 삶 속에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이끄는 위안과 기쁨을 찾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8) Earl R. Wasserman, *The Finer Tone*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67), p. 100.

II. 키츠의 시론

키츠는 강렬한 열정과 의지로 가득 찬 낭만주의 시인으로 인간과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짧은 시작활동 기간 동안 남긴 시와 편지에서 자신의 인생관과 시론을 보여준다. 그는 다채로운 언어를 구사하며 삭막한 세계에서 상상력을 통해 미와 행복을 찾고자 한다. 레이놀즈(John Hamilton Reynolds)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영원한 존재, 미의 원리, 위대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제외하고는-대중 혹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비하함을 느끼지 않는다(Letters, 84)”라고 밝히고 있듯이 그가 미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다. 더불어 시의 위대한 미는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며 미에 대한 시적 표현은 모호하지 않고, 그러한 표현은 독자를 만족시키는 대신 숨 막히게 하고 이미지 생성과 진행, 종결은 태양처럼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비추고 엄숙히 사라져야 한다(Letters, 70)고 주장한다. 키츠는 모든 것에서 미를 느낄 수 있는 원칙을 사랑했으며 “나이팅게일”(Nightingale)이나 “그리스 항아리”(Grecian Urn)와 같은 사물로 부터 미를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미도 받아들인다.⁹⁾ 그 이유는 고통이 없는 이상 세계에서의 미뿐만 아니라 고통, 불행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서도 미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키츠는 미를 시적 추구의 목표로 삼으며, 미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진리이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는다. 키츠가 미에 대해 역설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진실한 감정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테일러(John Taylor)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돌아나듯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시라면 아예 나오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Letters, 77)”라고 말한 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츠는 자연 속에서 미를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초기 시는 다양한 자연현상을 묘사함으로써 기쁨과 쾌락을 주는 미에 대해 다룬다.

9) Murry, p. 72.

키츠는 고독 속에서도 그의 위대한 기쁨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영국의 아름다운 시골길을 오랫동안 거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자연의 흐름을 면밀하게, 열렬하게 바라보았다. 수많은 의구심에 대해 빠르고 예민한 반응을 지닌 키츠는 모든 자연이 신비스럽고 창조적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¹⁰⁾

이러한 노이즈(Russell Noyes)의 주장은 자연에 대한 키츠의 태도를 말해준다. 키츠의 초기 작품이 자연의 미를 기쁨으로 인식하고 노래했다면, 동생의 죽음, 폐병, 애인 브론(Fanny Brawn)과의 비련의 사건 등으로 고통과 고뇌에 빠지는 경험을 한 후에는 인간의 고통 속에서 미를 느끼는 영원불멸의 미에 대해 노래하며 사물의 본질을 변하지 않는 미로 여긴다. 그리하여 그가 바라 본 아름다운 자연을 찰나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미로 형상화 하는 것이다. 키츠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겪으면서 미가 인간에게 위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며 자연과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원리라고 깨닫는다. 따라서 미와 진리는 고통스런 과정을 겪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인간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것이 미의 진리라 주장한다. 그 결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미의 원리가 발견되었을 때 「그리스 항아리에 부치는 송시」의 마지막 어구에서처럼 “미는 진리이며, 진리는 미이다”(Beauty is truth, truth Beauty-that is all)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키츠는 본인의 불행한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없었던 삶의 미를 상상력을 통해 느낄 수 있었고 상상력을 통해 접하게 된 미를 시로 구현한다. 키츠의 상상력은 미와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시인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는 대상과 자신을 일치시켜 행복을 느끼게 되는 폭넓은 인식 능력이다.¹¹⁾ 키츠는 1817년 베일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상력과 미에 대해 언급하며 행복을 느끼는 이상적인 미야 말로 진리라고 정의한다.

나는 마음의 애정에서 우러난 감성의 신성함과 상상력의 진실성 말고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않는다. 상상력이 미로 포착해놓은 것이야말로 진리임에 틀림없다-

10) Russell Noyes, *English Romantic Poetry and Prose* (New York : Oxford UP, 1972), p. 1121.

11) Leon Waldoff, *Keats and the Silent Work of Imagination* (Urbana Champagne: Univ. of Illinois P, 1985), ix - x .

그것이 이전에 존재했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 왜냐하면 나는 사랑에서 느끼는 열정과 같은 것을 상상력이라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전부이며, 그들의 숭고함 속에서 본질적인 미를 창조한다. ... 상상력은 아담의 꿈에 비유될 수 있다. 그가 깨어나 보니 꿈이 사실이었으므로.(*Letters*, 40)

따라서 상상력은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서만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키츠에게 있어 상상력은 현실의 고통을 잊는 수단으로 현실과 분리된 상상력이란 단순 환상일 뿐이며 결국 파괴적인 측면까지 있음을 인지하여, 현실과 분리된 상상력이 아닌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상상력을 추구한다. 또한 상상력을 "아담의 꿈"(Adam's dream)에 비유한 것처럼, 키츠의 송시에는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거나 동일시 될 때가 많은데 키츠가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도 꿈과 깨어남이 교차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키츠가 선택한 방법은 상상력을 의미하는 그만의 독특한 개념인 "받아들이는 힘"이다.

특히 문학에서 성취의 인간을 만드는 데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셰익스피어가 엄청나게 많이 소유했던 것 -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받아들이는 힘"이란 인간이 사실이나 이성을 애써 추구하지 않고 불확실성과 신비와 의심 속에 머무를 수 있을 때이다.(*Letters*, 46)

즉, "받아들이는 힘"은 시인을 기준으로 보면 부정적이지만 일단 시인의 개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물이나 자연 그리고 인간의 감성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1818년 리차드(Richard Woodhouse)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밝혔듯이(*Letters*, 144), 시인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시적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태양, 달, 바다, 인간 등의 객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정체성을 감지한다. 따라서 시인은 가장 독립적이고 고정된 성격을 지니지 않아서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야만 언제 어디서든 태양, 달, 바다, 남성, 여성과 같은 모든 것으

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키츠는 대상의 본질과 교감하고 동화하기 위해서 진정한 시인이 가져야 할 태도란 카멜레온처럼 대상의 성질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꽃과 별을 비유로 들면서 시 이론을 설명한다.

우리는 별보다 오히려 꽃이 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꿀벌처럼 어떤 지식에 도달해야 한다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서두르며 자료를 모으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지 말자: 꽃처럼 우리들의 잎들을 열고, 수동적이고 수용적이 되자.(*Letters*, 68)

이것은 어디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꽃이 갖는 수용적인 자세가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즉 시인은 사물의 진수를 추구하는 상태에서 다소 불확실하고 의혹스러워도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뜻한다.

키츠는 진정한 시를 창작하기 위해서 시인은 갈등의 상태에 초연해야 한다고 말한다. 갈등을 일으키는 어떠한 "의심"(doubts)의 세계, "불확실성"(uncertainty), "신비"(mystery)의 세계 속으로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비로소 "받아들이는 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의심은 라틴어 "dubitare"에서 비롯된 것으로 두 개의 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갈등에서 두 사람, 혹은 두 개의 마음은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츠는 서로 싸우는 것 대신에 상상력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힘"은 최고의 감정이입(empathy)의 숭고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이입이란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완벽하게 버리고 바라보는 대상과 동일시되는 것"(an involuntary projection of ourselves into an object¹²⁾)이다. 이는 관찰자가 그의 감각으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사물의 특성으로 "느낀다는 것"(feeling into)으로 여기서 사물은 인간이거나, 인간이 아니거나 혹은 무생물체 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사물을 바라보며 상상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갈등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적 방법이다. 즉 다른 사람, 혹은 동물, 사물로 상상력을 갖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성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키츠의 감정이입은 단순히

12) M. H. Abrams, ed.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4th ed. (New York: Norton, 1981), p. 48.

자아를 다른 객체와 합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자아를 버리고 객체의 본질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포함하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시적 영혼이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진수로 압축되어 아름다운 시를 통해 살아 있는 진리의 요소가 된다. 요약하면, “받아들이는 힘”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선부른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그 대상의 모든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인식 능력이며 동시에 역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키츠는 인간이 마음을 열어놓으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현실의 본질에 대한 진리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키츠는 이 능력을 극대화시켜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받아들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818년 5월 3일 레이놀즈에게 쓴 편지(Letters, 103)에서 인생을 많은 방을 가진 대저택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경험의 방을 모두 거쳐야 한다고 말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들어서는 곳은 “유아 혹은 무사고의 방”(the infant or thoughtless Chamber)이다. 그곳은 인간이 태어나 처음 거치는 방으로 오래 머무는 곳이지만 아무런 생각도 지각도 없는 곳이다. 이어 두 번째로 들어가는 방은 “처음으로 사고하는 방”(the Chamber of Maiden-Thought)으로 그곳에는 빛과 공기가 존재하고 즐거운 경이와 기쁨을 알게 되지만 곧 사고가 깊어지고, 이러한 사색은 우리로 하여금 비참함, 상심, 고통, 질병, 억압 등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과 본질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키츠가 생각하는 시인은 기쁨과 슬픈 감정 모두 보통 사람들보다도 즐거이 감내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많은 경험을 통해 사물의 본질과 정체성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키츠는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영역을 거쳐 고통의 영역으로 나가는 것을 인식한다. 이에 현실의 고통과 슬픔마저도 영혼 형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고 동생 조지 부부(George and Georgiana Keats)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영혼 형성의 계곡”을 언급한다.

원한다면 세상을 “영혼 형성의 계곡”(vale of soul-making)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너는 세상의 유용함을 알게 될 것이다. 영혼 형성에서의 영혼은 지성과는 다른 것이다. - 수백만의 다양한 빛과 지성이 있는 것인데 - 그러나 그것들은 정체성

을 획득해야만 그리고 각각 그 자체거나 개별적인 것이 되어야만 영혼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신은 이 빛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 인간 개인에게 특별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인가? 이와 같은 세상의 중재에 의해서?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기독교보다 더 위엄스런 구원의 체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인간의 마음(지성이나 심성과 구분되는)과 정체성을 소유하도록 운명이 된 영혼과 지성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서로에게 마음과 심성을 적당히 작용하기에 적합한 세계와 요소가 되는 공간이다.(*Letters*, 217)

인간은 심성(heart), 지성(mind), 영혼(soul)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심성은 인간이 가지는 열정만 존재하는 본능적 세계이고 지성은 인간의 육체적 속성과 대비되는 신성의 불꽃이다. 그러나 영혼은 심성과 지성이 세상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잠재된 실체이다. 즉 영혼이란 개개인의 독특한 자아의식이며 자신이 존재하는 운명을 수용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키츠가 세계를 "영혼 형성의 계곡"이라 언급한 이유는 이 세상이 슬픔과 고통 등의 비극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기쁨과 행복도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인간에게 고통에 대한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며 인간의 내면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을 구축함으로써 인간의 내실을 다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키츠에게 있어서 상상력과 미의 개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행복의 개념이다. 그는 이 개념을 초기 시인 『엔디미온』(*Endymion*)에서 설명하는데, 1817년 벤자민 베일리(Benjamin Bailey)에게 보낸 편지에서(*Letters*, 41) 『엔디미온』을 상상력의 힘을 시험하는 시이며 상당히 노고를 들여 쓴 첫 번째요 유일한 시라고 언급하며 상상력과 미,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피력한다. 『엔디미온』을 요약하면 현실적인 미와 이상적인 미는 별개의 것이라고 믿는 청년 "엔디미온"(Endymion)이 "신시아"(Cynthia)로 대변되는 환상을 추구하는 여행을 통해 영적인 여행을 하게 되며 인생에서의 경험의 폭을 넓히는 내용이다. 미의 원리이자 이상적인 미로 표현된 달의 여신 "신시아"의 사랑을 얻기 위해 고난, 좌절, 역경을 겪으며 그토록 찾아다니던 "신시아"를 포기하고 현실적 인물인 인도 처녀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도 처녀는 신시아가 된다. 결국 고통을 감내한 후에야 역설

적으로 진정한 미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으로 이 시는 대해 감각적인 미로 시작하여 인간적인 봉사과 동료에 대한 동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함으로써 이상적인 미로 끝을 맺는다.¹³⁾ 이것은 인간이 자연의 미를 먼저 인지한 후에 사랑과 우정으로 다른 인간을 동화하며 감각적인 성적 사랑을 거쳐 자기상실, 혹은 몰개성을 통해 본질과 일치하여 불멸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는 고통스러운 삶에 위안을 줄 미를 찾는 것이 삶의 목표임을 제시하며 미에 대해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다.
그 사랑스러움은 증가하고, 그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며, 항상 우리에게
조용한 쉼터와, 감미로운 꿈으로 가득찬 잠과
건강과, 조용한 호흡이 되어주네.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 ever:
Its loveliness increases; it will never
Pass into nothingness; but still will keep
A bower quiet for us, and a sleep
Full of sweet dreams, and health, and quiet breathing. (I , 1-5)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체적 사물의 본질적인 미에서 상상력을 통해 그 미가 주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감각이나 상상력을 통해 모든 사물에서 느끼는 미는 인간의 삶에 조용한 쉼터가 되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며 영혼을 짓누르는 실망과 비인간적인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어 “엔디미온”은 달의 여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인간세계에서 완전한 행복이란 어디에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에 의하면 행복이란 성스러운 마음으로 “본질과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비평가들이 본질과의 교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한다. 키츠에게 행복이란 본질과 하나가

13) Sperry, p. 91.

되는 것이며 이는 특정한 아름다운 것들과의 완전한 융합이다.¹⁴⁾ 즉, 진정한 행복은 본질적인 미와의 소통에 있으며 이는 신과 교감하는 것이다.¹⁵⁾ 따라서 본질과의 교류란 현실세계의 미와 이상세계의 미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으로 두 가지의 미가 결합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와의 신성한 유대로 자유로워진 영혼은 스스로 빛나게 하고 이는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부정하고 공감과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내가 행복을 썼을 때 그것은 상상력이 진리를 향해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쾌락의 체온계와 같이 행복의 점진적인 단계가 내 앞에 놓여있고 드라마에서의 주된 시도를 하는 나의 첫 번째 단계이다.(*Letters*, 60)

결과적으로 키츠가 생각하는 행복은 상상력이 진리를 향해서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연에서 미를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술을 통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정에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랑을 통해 미를 느끼는 것이다. 키츠는 사랑의 단계에서 느끼는 행복을 궁극적인 미(ideal beauty)라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된다. 이처럼 키츠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희망과 열정을 심어주고자, 모든 사물로부터 포착한 미를 통해 행복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 노래한다.

첫째로 자연의 미에 대한 감각적 기쁨에 대해 언급한다.

너의 뽀족한 손가락 끝에 장미 잎사귀를
붙잡아라,
그리고 너의 입술을 달래거라.

Fold

A rose leaf round thy finger's taperness,

14) Clarice Godfrey, "Endymion," *John Keats: A Reassessment*, ed. K. Muir (Liverpool: Liverpool UP, 1958), p. 27.

15) Murry, p. 30.

And soothe thy lips: (I , 781-783)

“엔디미온”이 달의 미를 예찬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자연의 미 중 하나의 것을 선택해 예찬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물이나 자연의 현상이 미로 포착되는 순간에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이는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송시」에서 나이팅게일의 세계에서 온갖 꽃과 나무들을 인식하는 순간, 자연의 미가 주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행복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느끼는 정신적 기쁨에 대해 언급한다.

조용히, 음악의 키스의 공중울림이
자유로운 바람을 잉태하고,
공감적인 접촉으로
그들의 맑은 자궁으로부터 에올리언의 마술이 풀린다.
그러면 희미한 무덤으로부터 오래된 노래가 깨어나고
옛 노래들이 그들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 한숨짓고
아름다운 예언을 하는 영혼들이
아폴로의 발이 밟았던 곳곳을 돌아다닌다.
옛날 옛적 전쟁이 격심했던 곳에서는
창동 나팔 소리가 일어나서 희미하게 소리를 울려 퍼트린다.
그리고 뗏장으로부터 자장가가 일어나
어린아이 오르페우스가 잠들었던 모든 곳을 지나간다.
우리는 이것들을 느낄 수 있을까?

 hist, when the airy stress
Of music's kiss impregnates the free winds,
And with a sympathetic touch unbinds
Eolian magic from their lucid wombs:
Then old songs waken from enclouded tombs;
Old ditties sigh above their father's grave;
Ghosts of melodious prophecyings rave

Round every spot where trod Apollo's foot;
Bronze clarions awake, and faintly bruit,
Where long ago a giant battle was;
And, from the turf, a lullaby doth pass
In every place where infant Orpheus slept.
Feel we these things?— (I , 783-795)

어떤 예술가가 아름다운 얘기들을 듣거나 읽고 나서 그의 예술적 영감을 얻어 낸 뒤, 상상력을 발휘해 창작한 예술품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예술의 미를 인식하는 것은 상상력으로 빚어진 예술작품은 영원한 미를 창출할 것이며 이것을 깊이 인식할 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정과 사랑을 통한 하나됨(eness)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마지막 단계는 머리가 진정한 행복은 본질적인 미와의 소통에 있다고 말했듯이, 미는 인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며 그 순간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뚝뚝 떠다니는 영혼의 성취를 이루게 된다.

이런 순간 우리는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의 상태는
떠다니는 구름과 같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욱 풍요로운 뒤얽힘들이 있다. 뒤얽힘들은
보다 더한 자기 파괴로 가고, 보다 더 강한
황홀이 있다. 이들의 왕관은
사랑과 우정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성의 이마 위에 높이 앉아 있다.
보다 더 육중하고 부피가 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우정으로, 거기에서 끊임없이 빛이 나온다.

that moment have we stept
Into a sort of oneness, and our state
Is like a floating spirit's. But there are
Richer entanglements, enthrallments far

More self-destroying, leading, by degrees,
 To the chief intensity: the crown of these
 Is made of love and friendship, and sits high
 Upon the forehead of humanity.
 All its more ponderous and bulky worth
 Is friendship, whence there ever issues forth
 A steady splendour; (I , 795-805)

자신의 자아마저도 완전히 버린 채 강렬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더욱 풍요로운 뒤엎힘들"은 현실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충분히 만끽함으로써 강렬하고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정과 사랑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며 공감할 때 타인과의 완전한 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기희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상대방에게 베풀며 타인과 일체가 되는 우정과 사랑이야말로 자연의 미와 예술의 미에서 느끼는 행복보다 더 극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거기서 혼합될 때,
 삶 자체는 그 삶의 진수로 살찌워지고,
 우리는 펠리컨처럼 양육된다.

when we combine therewith,
 Life's self is nourish'd by its proper pith,
 And we are nurtured like a pelican brood. (I , 813-815)

다시 말해 인간은 먼저 자연과 예술에서 미를 인지한 후, 영혼 성취를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우정과 사랑으로 타인과 동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인간은 "정수"(essence)인 신에 용해되어 불멸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 상처를 내어 자신의 피를 어린 새끼에게 먹이로 준다고 알려진 펠리컨 새들처럼 자기 소멸을 통해 자연의 미에 대한 인식을 거쳐 "하나됨"(oneness)에 이르게 되고, 자기 소멸은 더욱 심화되어 우정과 사랑으로 발전한다.

행복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상상력이 규칙적으로 점진해 간다는 시론을 토대로 키츠는 시적 이미지를 구상하고 미와 행복, 그리고 진리를 표현한다. 이것은 자아를 버리고 대상에 합일되는 “받아드리는 힘”을 통해 가능하며 키츠가 진리를 통해 다다르려는 영적인 세계는 우선 자연의 감각적인 미를 통해 상상력의 본질이 형성되고 이 후에 사랑과 진리, 그리고 미와 같은 영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즉 키츠는 상상력을 통해 정신세계를 확대시킴으로써 미와 진리와 사랑이 인간의 영혼 속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함을 노래한다.

III. 송시에 나타난 Negative Capability와 미의 양상

1. 「프시케에 부치는 송시」 : 비움과 상상의 힘

「프시케에 부치는 송시」("Ode to Psyche")는 나머지 송시를 쓰게 한 촉매제 역할을 하며 이 후 집필된 송시들에 대한 원형이 되는 작품이다.¹⁶⁾ 이 송시의 원본은 1819년 봄에 그의 동생 조지(George)에게 쓴 편지에서 발견되었는데, 키츠 스스로도 이 작품이 다른 송시를 쓰는데 토대가 되는 작품임을 암시한다.

내가 가장 최근에 쓴 다음 시는 상당한 노고를 들여 쓴 첫 번째요, 유일한 것이
다-나는 지금까지 서두르면서 단숨에 썼다- 그리고 여유롭게 완성했다- 그래서
이 시는 더 풍요롭게 읽힐 것이라 생각하고, 이 시가 더 평화롭고 건강한 마음
상태에서 내가 다른 작품을 쓰도록 격려해주기를 바란다.(*Letters*, 191)

이 송시는 상상력을 통해 키츠가 시인으로서 정체성을 추구해가는 첫 번째 단계로 평해진다.¹⁷⁾ 「프시케에 부치는 송시」에 나오는 프시케와 큐피드는 키츠의 성숙한 시가 추구할 전체의 이미지이며, 그리스 신화에서 프시케가 이 세상의 온갖 고통을 이겨내고 감성과 지성을 갖춘 여신으로 변한 것은 키츠의 영혼의 구원 체계라 할 수 있는 영혼 형성의 계곡과도 일치한다. 즉, 사랑의 신인 큐피드와 영혼과 정신의 상징인 프시케의 결합은 감정과 정신 또는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의 합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영혼 형성의 계곡"에서 마음의 애정이 주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⁸⁾

「프시케에 부치는 송시」에서 화자는 프시케의 사제가 되는 것을 맹세하고 그의 마음에 프시케를 위한 신전을 지음으로써 영혼형성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시인인 화자는 프시케 여신에게 기원하여 자신의 시를 바치는 것으로 시작한다.

16) Bate, p. 498.

17) Harold Bloom, *The Odes of Keats* (New York: Chelsea House Pub., 1987), p. 43.

18) Wolf. Z. Hirst, *John Keats* (Boston: Twayne, 1981), p. 119.

오 여신이여! 달콤한 강요와 사랑스러운 추억으로 짜낸
 이 소리없는 노래에 귀를 기울여다오,
 그리고 그대의 비밀이 노래가 되도록 부탁한다오,
 심지어 그대의 부드러운 조개껍질 같은 귀속까지.
 분명 나는 오늘 꿈을 꾸었노라, 아니면 내가 본 것일까
 잠 깬 눈으로 날개 달린 프시케를?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숲 속을 거닐고 있었는데,
 문득 기절할 듯이 깜짝 놀라,
 두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았다.
 깊숙한 풀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잎사귀와 떨리는 꽃들의 속삭이는 지붕 아래에서.

O Goddess! hear these tuneless numbers, wrung
 By sweet enforcement and remembrance dear,
 And pardon that thy secrets should be sung
 Even into thine own soft-conched ear:
 Surely I dreamt to-day, or did I see
 The winged Psyche with awaken'd eyes?
 I wander'd in a forest thoughtlessly,
 And, on the sudden, fainting with surprise,
 Saw two fair creatures, couched side by side
 In deepest grass, beneath the whisp'ring roof
 Of leaves and trembled blossoms, where there ran
 A brooklet, scarce espied: (1-12)

상상과 현실의 교차점인 꿈꾸는 듯한 상태로 숲 속을 거닐다 뜻밖에 아름다운 두 연인을 발견하고 놀라워하는 화자의 모습은 실제로 두 연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된다. 화자는 여신에게 "소리 없는 노래"를 들어달라는 것과 "강요"는 고통스럽지만 달콤하다고 표현한다. 이어 프시케와 큐피드가 숲 속에서 포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몽환적 상태는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꿈과 의식의 중간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마음이 가장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다.¹⁹⁾ 또한, 키츠는 종종 질문을 통해 대상과 합일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서 화자는 꿈과 현실 사이에 놓여있는 자신의 생각을 질문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왈도프는 키츠가 종종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환상과 현실 사이의 다리로 사용했다고 평한다.²⁰⁾

화자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경험을 계속하면서 숲 속의 작은 시냇가 실바람에 흔들리는 꽃과 나뭇잎 아래 누워 포옹하고 있는 두 연인을 숲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키츠의 시에서 숲이 상징하는 것은 상상과 실재가 만나는 곳이며 또한 상상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영역이다.

조용한, 뿌리 서늘한, 향기로운 눈을 가진,
 파란, 은백색의, 봉오리 진 꽃들 사이에서
 그들은 풀 침대 위에서 고요히 숨 쉬며 누워있네.
 그들의 팔과 날개들로 서로 껴안고서
 그들의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작별을 고하지도 않았네.
 마치 부드러운 손길 같은 잠으로 인해 떨어졌지만,
 간밤의 입맞춤을 능가하려는 듯
 아우로라의 사랑이 부드러이 눈뜰 적에
 날개 달린 소년을 나는 알고 있었네.
 하지만, 그대는 누구였던가, 오 행복하고 행복한 비둘기여?
 그의 진실한 프시케였던가!

Mid hush'd, cool-rooted flowers, fragrant-eyed,
 Blue, silver-white, and budded Tyrian,
 They lay calm-breathing, on the bedded grass;
 Their arms embraced, and their pinions too;
 Their lips touch'd not, but had not bade adieu,
 As if disjoined by soft-handed slumber,

19) Mario K. D'Avanzo, *Keats's Metaphors for the Poetic Imagination* (Durham: Duke UP, 1967), p. 203.

20) Waldoff, p. 109.

And ready still past kisses to outnumber
 At tender eye-dawn of aurean love:
 The winged boy I knew;
 But who wast thou, O happy, happy dove?
 His Psyche true! (13-23)

여기서 연인들은 행복 그 자체이며, 연인들을 그림의 한 장면처럼 묘사하는 것은 이 상황을 영원히 지속될 행복을 찰나에 포착한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화자는 “그대는 누구였던가, 행복하고 행복한 비둘기여?”라고 묻고 난 후에 “그의 진정한 프시케였노라”라고 외친다. 행복이란 단어를 두 번 반복한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프시케의 존재가 실체의 것으로 믿겨지는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그 결과 행복이라는 강렬한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프시케와 큐피드의 행복한 순간은 시작도 끝도 분명하지 않은 강렬함과 절제가 어우러져 있는 상태이다.

프시케의 존재는 2연과 3연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화자는 프시케가 뒤늦게 여신이 되었지만, 그녀의 미는 올림포스의 어느 신보다 뛰어나다고 말한다.

오 모든 올림포스의 퇴락한 계급 중에서도
 가장 늦게 태어났으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환영이여!
 달의 여신 포에베의 사파이어 빛이 나는 별보다
 혹은 하늘의 사랑스런 반딧불 명성보다도 더 아름답구나.
 이들보다 더 아름답구나, 비록 그대가 신전도,
 꽃을 쌓아 놓을 제단이 없더라도,
 한밤중에
 달콤한 신음 소리를 만들어 내는 처녀 합창대도
 사슬에 매여 흔들리는 향로에서 풍겨 나오는
 목소리도, 류트도, 피리도, 그윽한 향기도
 창백한 입술의 꿈꾸는 예언자의
 신전도, 덤불숲도, 신탁도, 열기가 없더라도.

O latest born and loveliest vision far
 Of all Olympus' faded hierarchy!
 Fairer than Phoebe's sapphire-region'd star,
 Or Vesper, amorous glow-worm of the sky;
 Fairer than these, though temple thou hast none,
 Nor altar heap'd with flowers;
 Nor virgin-choir to make delicious moan
 Upon the midnight hours;
 No voice, no lute, no pipe, no incense sweet
 From chain-swung censer teeming;
 No shrine, no grove, no oracle, no heat
 Of pale-mouth'd prophet dreaming. (24-35)

2연에서 화자는 프시케가 여신으로서 소유해야 할 "신전", "제단", "합창대", "목소리", "통소", "피리", "향로에서 넘치는 그윽한 향기", "덤불 숲" 등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했음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화자는 프시케가 가장 늦게 여신이 되었지만 프시케의 미는 다른 어느 올림포스 신보다 뛰어나다고 말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시케는 큐피드의 어머니인 아프로디테의 질투로 인해 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었지만 이를 견뎌냈고 결국에는 큐피드와의 영원한 사랑을 영위할 수 있었다. 신화에서처럼 화자는 프시케가 고통스러운 인간 세계의 문제들을 이겨낸 여신이기에 때문에 올림포스의 어느 신보다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다.

3연에서는 2연에서 반복되는 "no"를 "thy"로 바꾸면서 프시케 여신에게 무엇이든지 바치겠노라고 말한다.

오, 가장 밝은이여! 비록 고대의 맹세를 받기엔 너무 늦었지만
 아름다운 신되하는 수금의 소리를 받기엔 너무 늦었지만
 신들이 출몰하는 숲의 나뭇가지들은 성스럽고,
 공기도, 물도, 불도 성스러웠을 적에,
 그러나 행복한 숭배에서 아주 떨어진 요즘에도
 그대의 빛나는 날개들이

힘 잃은 올림포스 신들 사이에서 펄럭이는 것을
 나는 본다네. 그리하여 나 자신의 눈에 영감 받고서 노래한다네.
 그러니 내가 그대의 합창대가 되어 신음소리를 내게 해 주십시오.
 한밤중에
 그대의 목소리, 그대의 류트, 그대의 피리, 그윽한 향기
 사슬에 매여 흔들리는 향로에서 풍겨 나오는
 그대의 신전, 그대의 덩불숲, 그대의 신탁, 그대의 열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창백한 입술의 꿈꾸는 예언자의

O brightest! though too late for antique vows,
 Too, too late for the fond believing lyre,
 When holy were the haunted forest boughs,
 Holy the air, the water, and the fire;
 Yet even in these days so far retir'd
 From happy pieties, thy lucent fans,
 Fluttering among the faint Olympians,
 I see, and sing, by my own eyes inspir'd.
 So let me be thy choir, and make a moan
 Upon the midnight hours;
 Thy voice, thy lute, thy pipe, thy incense sweet
 From swung censer teeming;
 Thy shrine, thy grove, thy oracle, thy heat
 Of pale-mouth'd prophet dreaming. (36-49)

프시케가 여신으로서 다른 신들처럼 그녀만의 신전이나 제단을 갖지 못하고 인간의 숭배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화자는 "합창대", "목소리", "피리" 또는 "향로에서 넘치는 향기", "성전", "덩불 숲" 등 무엇이든지 바치겠노라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자는 시인으로서 프시케라는 대상에 몰입하여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시 안에서 높은 수준의 합일을 이루려고 한다. 즉 프시케는 상상력과 영감을 불어 넣어 주는 시적 영혼의 여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신과 여신이 동화되어 정신과 육체가 합일된 세계를 섬기고 찬양하는 예언자가 되겠다고 말하며 현실의 고

통을 인내하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간청한다.

4연에서 화자는 처음 여신에게 간청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 적극적으로 프시케의 사제가 되어 봉사할 것임을 다짐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대의 사제가 되어 신전을 짓겠습니다.

내 마음의 어느 인적 드문 곳에

거기서는 즐거운 고통으로 새로 자란 사상의 가지들이

소나무 대신 바람 속에 속삭이게 하고.

Yes, I will be thy priest, and build a fane

In some untrodden region of my mind,

Where branched thoughts, new grown with pleasant pain,

Instead of pines shall murmur in the wind: (50-53)

이는 프시케가 겪은 “영혼 형성의 과정”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프시케의 신전을 짓는 것은 시인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일종의 자연과의 교합, 우주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영혼의 일체가 되는 것이며 상상력을 풍부하고 활기 넘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¹⁾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의식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신전을 짓는 것이 기쁨을 주기도 하겠지만 현실세계를 인식해야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다. 따라서 신전에 무성하게 자란 잡다한 생각의 가지들이 즐거운 고통으로 자랄 것이라고 한다.

이어서 화자는 실제의 신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상상력만으로 고양된 마음속에 내적으로 존재하는 풍경을 그린다.

저 멀리 주위에는 매우 울창한 나무들로

절벽과 절벽 같은 거친 봉우리의 산들을 깃털 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들바람, 시냇물, 새, 벌들이

이끼 위에 누운 숲의 요정들을 잠재우도록 하겠습니다.

21) Harold Bloom, *The Visionary Company: A Reading of English Romantic Poetry* (Ithaca: Cornell UP, 1971), p. 403.

그리고 이 광대한 정적의 한 가운데
 장밋빛 성당을 나는 꾸미겠습니다.
 활발히 활동하는 두뇌가 만든 꽃다발 격자 시령과
 꽃봉오리들과 종들과 이름 없는 별들로,
 꽃들은 기르지만 결코 똑같은 것을 기르지 않는
 공상이란 정원사가 만들어 내는 모든 것들로.

Far, far around shall those dark-cluster'd trees
 Fledge the wild-ridged mountains steep by steep;
 And there by zephyrs, streams, and birds, and bees,
 The moss-lain Dryads shall be lull'd to sleep;
 And in the midst of this wide quietness
 A rosy sanctuary will I dress
 With the wreath'd trellis of a working brain,
 With buds, and bells, and stars without a name,
 With all the gardener Fancy e'er could feign,
 Who breeding flowers, will never breed the same: (54-63)

"검은 울창한 나무들"과 "거친 절벽의 산들"로 장식되고, "서풍"과 "시냇물", "새들"과 "별들" 사이에서 "숲의 요정들"조차 잠들게 하는 이곳은 자연 세계의 미를 나타낸다. "방울"과 "꽃봉오리"로 상징되는 자연적인 영역과 "별"로 상징되는 초자연적인 영역이라는 대조적인 요소들로 장식된 "장미빛 성당"은 즐거움과 고통이 공존하는 장소로, "광대한 정적"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완벽한 하나의 상황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프시케 여신을 위해 정신 속에서 만든 신전을 단장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마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화자는 계속해서 상상력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위해 상상의 문을 열어둘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거기선 어슴푸레한 사상이, 환한 횃불 하나와

따스한 사랑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밤에 열려 있는 창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온갖 부드러운 기쁨이 그대 위해 존재하도록!

And there shall be for thee all soft delight
That shadowy thought can win,
A bright torch, and a casement ope at night,
To let the warm Love in! (64-67)

“부드러운 기쁨”은 외적으로는 사랑의 행위를 통한 기쁨을 의미하며 내적으로는 고통을 통한 영혼 성취로 인해 오는 기쁨을 의미한다.²²⁾ 즉 프시케가 환한 햇불을 쬐고 큐피드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화자도 시인으로서 시를 통해 따뜻하고 밝은 미래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음을 느낄 수 있다. 1연에서 날개달린 소년으로 언급된 큐피드와 행복하고 행복한 비둘기로 언급된 프시케는 사랑의 감각적인 면과 영혼의 정신적인 면을 대변하는 존재물이 되고, 마지막 두 행의 연인들의 사랑의 성취 이미지를 통해 강한 통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프시케에 부치는 송시」는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단순히 환상의 세계만을 그리지 않고 즐거움과 슬픔, 불멸과 필멸 등 인생의 참모습에 대해 얘기한다. 프시케가 온갖 고통을 겪었으나 그것을 이겨낸 후 미의 여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키츠는 프시케를 이 세상에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안, 힘, 그리고 삶의 열정을 주기 위한 본보기로 등장시킨다.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풍족한 신전을 지어주고 프시케 신의 고통을 극복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송시는 현실 세계에서 인간 삶에 내재하는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키츠는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현실의 수용을 위한 자신의 내적 성장의 근간을 마련한다.

22) 윤명옥, 『존 키츠의 시세계』 (대전: 도서출판 다래, 1998), p. 21.

2.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송시」 : 이상과 현실

낭만주의 시대에 주로 다루었던 주제들 중 하나는 상상력과 실제 삶을 기술하는 데 있었다. 키츠 역시도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송시」("Ode to a Nightingale")에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자연물인 나이팅게일을 소재로 삼아 상상력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통한 영원한 미의 세계를 발견한 화자가 그 세계를 동경한 나머지 죽음을 갈망하지만 이내 환상의 세계가 제공하는 허구성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다. 상상의 세계는 고통스러운 현실세계로부터 해방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현실의 세계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²³⁾

1연은 화자가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는 듯한 몽롱한 의식 상태로 숲 속에서 행복한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내 마음은 아려오고, 졸린 듯 나른한 마비는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 마치 조금 전에 독미나리를 마시거나,
아편을 송두리째 비워
한 순간이 지나 망각의 강 쪽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이는 그대의 행복한 운명을 부러워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행복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기에,
가벼운 날개 달린, 숲의 요정인 그대가
푸른 너도밤나무의
어느 선율적인 곳에서, 무수한 그늘 속에서,
마음 놓고 목청껏 여름을 노래하기에.

My heart aches, and a drowsy numbness pains
My sense, as though of hemlock I had drunk,
Or emptied some dull opiate to the drains
One minute past, and Lethe-wards had sunk:
'Tis not through envy of thy happy lot,
But being too happy in thine happiness,—

23) Cleanth Brooks, *Modern Poetry and the Tradition* (New York: Oxford UP, 1965), p. 31.

That thou, light-winged Dryad of the trees
 In some melodious plot
 Of beechen green, and shadows numberless,
 Singest of summer in full-throated ease. (I, 1-10)

여기서 나이팅게일은 숲의 요정으로, 초여름이 가져다주는 헤아릴 수 없는 녹음 속에서 여름을 노래한다. 화자는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나이팅게일에 몰입함으로써 인간과 차원이 다른 기쁨과 행복의 세계의 존재물로 묘사하며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양면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화자는 기쁨에 넘치는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를 듣고 난 후, 가슴이 아파오고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졸린 마비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화자에게 생명, 자유, 편안함 등을 주지만 동시에 그를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마비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감각이 마비되는 고통의 상태가 되는 이유는 나이팅게일의 행복을 시기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그 속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프시케에 부치는 송시」에서 “행복하고 행복한 비둘기여”라는 표현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두 번 사용함으로써 대상과 합일을 이루었음을 보여주었듯이 “행복 속에서 행복하다”(being too happy inn thine happiness)라는 표현을 통해 나이팅게일과 합일되어 새의 노래는 기쁘지만 그 노래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현실을 인식시켜 주고 그 때문에 기쁨과 반대되는 감정인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다.²⁴⁾ 따라서 나이팅게일의 행복한 노래 소리는 인간의 현실 세계의 고통과 슬픔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기쁨과 고통이라는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2연에서 화자는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술의 힘을 빌려 기쁨과 행복이 넘쳐흐르는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몰입되기를 갈망한다.

오, 포도주 한 모금 마셨으면! 깊이 파인
 땅속에서 오랫동안 서늘해져,
 플로라와 농촌의 풀밭과
 춤, 프로방스의 노래, 햇볕에 그을린 환희의 맛이 나는!

24) Cleanth Brooks, and Robert Penn Warren, eds. *Understanding Poet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p. 343.

오, 따뜻한 프랑스 남국의 술이여,
 진리로 가득한 붉은 영천이여,
 가장자리에서 구슬 같은 거품 방울들이 눈 깜박이는,
 주둥이가 자줏빛으로 물든 것을 한잔했으면,
 그렇게 술 마시고, 남몰래 이 세상을 빠져나가
 어슴푸레한 숲 속으로 그대와 함께 사라져 버렸으면.

O, for a draught of vintage! that hath been
 Cool'd a long age in the deep-delved earth,
 Tasting of Flora and the country green,
 Dance, and Provençal song, and sunburnt mirth!
 O for a beaker full of the warm South,
 Full of the true, the blushful Hippocrene,
 With beaded bubbles winking at the brim,
 And purple-stained mouth;
 That I might drink, and leave the world unseen,
 And with thee fade away into the forest dim: (II, 11-20)

화자는 이상적인 세계를 염원하며 나이팅게일이 있는 이상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꽃의 여신 플로라”, “농촌의 풀밭”과 “춤”, “프로방스의 노래”, 햇별이 익는 남국과 희열의 맛을 풍기는 깊은 땅 속에 오랫동안 저장되었던 “포도주 한 모금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포도주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여기서 알코올은 화자를 반쯤 취하게 만들어 나이팅게일의 세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어 화자는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 현실에서 떠나 어두운 숲 속으로 가서 나이팅게일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는 고통스런 현실을 벗어나려는 갈망으로 자연물의 미와 그 미를 통해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화자가 세상의 고통을 극복하는 수단이 된다.

3연에서는 인간 경험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 나열하며 현실세계의 고통과 절망이 깊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멀리 사라져, 녹아, 아주 잊어버렸으면
 나뭇잎 사이에서 그대가 결코 알지 못했던 것
 이 세상의 피로, 열병, 초조를
 여기서는 사람들이 앉아 서로의 신음 소리를 듣는다네.
 중풍 환자는 몇 개 남은, 슬픈, 마지막 희끗한 머리카락을 흔들며
 젊은이는 창백해져, 유명처럼 마르다 죽는다네.
 단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득 찬 슬픔과
 납덩이처럼 무거운 눈의 절망,
 미인은 빛나는 눈을 지속시킬 수 없어
 새로운 사랑은 내일을 넘어 그들을 그리워할 수 없다네.

Fade far away, dissolve, and quite forget
 What thou among the leaves hast never known,
 The weariness, the fever, and the fret
 Here, where men sit and hear each other groan;
 Where palsy shakes a few, sad, last gray hairs,
 Where youth grows pale, and spectre-thin, and dies;
 Where but to think is to be full of sorrow
 And leaden-eyed despairs,
 Where Beauty cannot keep her lustrous eyes,
 Or new Love pine at them beyond to-morrow. (III, 21-30)

2연에서 춤과 노래, 환희의 세계를 노래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3연의 "피로", "열병", "초조", "신음소리", "중풍", "슬픈", "비에", "절망" 등의 부정적인 단어는 현실세계의 절망감과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도록 느끼게 한다. 현실세계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고난 속에서 서로 신음을 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미도 사랑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처럼 3연은 전후의 연들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듯 하며 인간 경험의 가장 어두운 측면들을 효과적으로 압축시켜 놓고 있다.²⁵⁾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현실에 대한 깊은 사고와 이

25) Waldoff, p. 122.

해를 하면 할수록 희망이 아닌 절망만을 인식할 뿐이다. 나이팅게일은 현실의 고통에 얽매인 자신의 존재를 더욱 대조시켜주고 화자는 이러한 현실 세계를 벗어나 인간 세계의 문제들에 구속받지 않고 행복이 항상 넘쳐흐르는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가 존재하는 세계를 갈망하는 것이다.

4연에서는 술이 아닌 상상의 보이지 않는 시의 날개를 타고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날아가겠다고 표현한다.

사라져 버려! 사라져 버려! 내가 그대에게 날아갈테니,
디오니소스와 그의 바쿠스가 끄는 전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의 날개를 타고서,
비록 둔한 두뇌가 혼잡해 더디긴 하지만
벌써 그대에게 왔도다! 밤은 부드럽구나,
때마침 달 여왕이 모든 별 선녀들에게 둘러싸여,
옥좌에 앉아 있구나.
그러나 여기에는, 하늘로부터
우거진 녹음과 구불거리는 이끼 낀 길을 통해
불어오는 산들바람 외엔 빛이 없구나.

Away! away! for I will fly to thee,
Not charioted by Bacchus and his pards,
But on the viewless wings of Poesy,
Though the dull brain perplexes and retards:
Already with thee! tender is the night,
And haply the Queen-Moon is on her throne,
Cluster'd around by all her starry Fays;
But here there is no light,
Save what from heaven is with the breezes blown
Through verdurous glooms and winding mossy ways. (IV, 31-40)

키츠는 시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따라 그의 상상력을 점증시킨다. "포도주"에서 "영천"으로, "영천"에서 "바커스의 수레"로,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의 날개"로

이동하여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한다. 나이팅게일을 보며 날아가 버리라고 말하고서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의 날개”를 통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을 통한 세계는 물리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받아들이는 힘”에 의해 자신을 버리고 객체 속으로 이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팅게일의 세계는 달의 여왕이 왕좌에 앉아 있으며, 주위의 시종 별들에 의해 둘러싸인 하늘의 세계와 이끼가 무성하게 낀 숲 속의 세계이다. 그곳에는 산들바람에 따라 오는 빛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빛도 없으며, 산들바람 따라 오는 빛은 푸른 어둠과 꾸불꾸불한 이끼가 낀 길을 통해 오는 신비의 빛이다. 이러한 묘사는 나이팅게일이 신비의 세계에 속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의 날개로 도달한 이상 세계는 현실과 대비되는 황홀한 세계이다.

나는 볼 수 없다네, 무슨 꽃들이 내 발치에 있는지
 무슨 싱그러운 향기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지
 그러나 향기로운 어둠 속에서 갖가지 향을 짐작해 본다네,
 계절마다의 달이 주는
 풀, 잡목, 야생의 과일나무, 그리고
 하얀 아가위, 목장의 들장미,
 잎사귀에 가려진, 빨리 시드는 바이올렛 꽃들
 그리고 5월 중순의 만이인
 이슬의 포도주로 가득 찬, 피어나는 사향장미
 여름날 저녁에 뽕뽕거리며 다니는 날벌레들을.

I cannot see what flowers are at my feet,
 Nor what soft incense hangs upon the boughs,
 But, in embalmed darkness, guess each sweet
 Wherewith the seasonable month endows
 The grass, the thicket, and the fruit-tree wild;
 White hawthorn, and the pastoral eglantine;

Fast fading violets cover'd up in leaves;
And mid-May's eldest child,
The coming musk-rose, full of dewy wine,
The murmurous haunt of flies on summer eves. (V, 41-50)

“5월의 풀”, “덤불”, “야생 과일나무”에서 나는 향긋한 내음과 꽃향기가 가득하고 “여름날 응성거리는 파리 떼”가 모여 웅웅 거리고 있다. 그 곳에서는 발밑에 무슨 꽃이 있는지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통해 냄새를 짐작하고 말소리로 느끼며 감각적인 이미지들로 나타낸다.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상상의 세계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황홀한 경지에 도달한 후에 화자는 이제 최후의 현실도피 수단인 죽음을 이야기한다.

어둠 속에서 나는 듣고 있노라, 몇 번이나
안락한 죽음과 반쯤 사랑에 빠지지 않았던가,
수많은 사색의 시 속에서 부드러운 이름으로 그대를 부르며
나의 고요한 숨을 허공 속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 죽어 사라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호사스럽지 않은,
고통 없이 이 밤에 고요히 사라지는 것이
그대가 그대의 영혼을 멀리멀리 쏟아 놓을 때
환희 속에서!
너는 여전히 노래하리라, 그러나 나는 듣지 못하리-
너의 드높은 진혼가에 나는 한 줌 흙이 되리라.

Darkling I listen; and, for many a time
I have been half in love with easeful Death,
Call'd him soft names in many a mused rhyme,
To take into the air my quiet breath;
Now more than ever seems it rich to die,
To cease upon the midnight with no pain,
While thou art pouring forth thy soul abroad

In such an ecstasy!
Still wouldst thou sing, and I have ears in vain—
To thy high requiem become a sod. (VI, 51-60)

나이팅게일의 절묘한 선율에 도취된 화자의 상태를 “안락한 죽음과 반쯤 사랑에 빠져있다”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강렬하게 죽음을 갈망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짧고 순간적인 행복과 기쁨이 영원히 간직되길 바라는 의도일 것이다. 이 죽음은 키츠에게 강렬함이며 절정의 행복한 순간이다.²⁶⁾ 키츠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대상과의 온전한 합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죽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너는 노래하지만 나는 듣지 못하리”라는 표현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세계를 부러워하던 화자는 이 세상의 짐을 벗어던지고 난 후에 남아있는 세상의 아름다움마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다. 따라서 고통 없는 죽음에서 한 줌 흙이 되고, “한 줌 흙이 되어”라는 표현은 현실에 대해 자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7연에서는 무의식상태에서 돌아와 나이팅게일의 존재를 요정의 나라에 사는 상상 속의 새로 묘사하며 현실세계로 돌아온다.

그대의 죽음을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다네. 영원불멸의 새여!
어떤 굶주린 세대도 그대를 짓밟지 못하리,
지나가는 이 밤에 내가 듣는 이 소리는
고대에, 황제와 광대에게 들렸고
아마도 고향 그리워, 낯선 나라의 옥수수 밭에서
눈물 흘리며 서 있던 루스의 슬픈 가슴에서도
한 줄기 길을 찾았던 것과 똑같은 노래리라.
쓸쓸한 요정 나라에서
위험한 바다의 거품을 향해 열린
마법의 창문에 종종 마술 걸었던 똑같은 노래.

26) Wasserman, p. 196.

Thou wast not born for death, immortal Bird!
 No hungry generations tread thee down;
 The voice I hear this passing night was heard
 In ancient days by emperor and clown:
 Perhaps the self-same song that found a path
 Through the sad heart of Ruth, when, sick for home,
 She stood in tears amid the alien corn;
 The same that oft-times hath
 Charm'd magic casements, opening on the foam
 Of perilous seas, in faery lands forlorn. (VII, 61-70)

화자는 여러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현실 세계의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 기쁨
 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나이팅게일이 부른다고 생각하여 "불멸의 새"라고
 부르고 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황제나 광대에게 기쁨을 주지만 고향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는 루스나 쓸쓸한 요정나라에는 진정한 위안이나 즐거움은 안겨주지
 못한다. 그러나 루스의 슬픔, 광대의 슬픔, 왕의 슬픔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면서 인
 간의 슬픔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쓸쓸하도다!"로 시작하는 8연은 자아를 나이팅게일과의 몰입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쓸쓸하도다! 이 말은 바로 나를 그대로부터
 나 자신에게로 불러들이는 모든 조종 같구나!
 잘 가라! 잘 속이는 요정이며, 공상은
 명성만큼 그렇게 잘 속이지는 못하는구나.
 잘 가라! 잘 가라! 그대의 구슬픈 노래는
 가까운 목장을 지나, 고요한 시냇물 위로
 언덕을 넘어 희미해지네. 그러더니
 다음 골짜기 숲 속에 깊이 묻히네.
 이게 환상이었나? 깨어 있는 꿈이었나?
 그 음악이 사라졌다네,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Forlorn! the very word is like a bell
 To toll me back from thee to my sole self!
 Adieu! the fancy cannot cheat so well
 As she is fam'd to do, deceiving elf.
 Adieu! adieu! thy plaintive anthem fades
 Past the near meadows, over the still stream,
 Up the hill-side; and now 'tis buried deep
 In the next valley-glades:
 Was it a vision, or a waking dream?
 Fled is that music:—Do I wake or sleep? (VIII, 71-80)

“공상”은 “잘 속이는 요정”이 되고 그 명성만큼 잘 속이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인간의 살지 않는 쓸쓸한 요정의 나라에서나 들리는 마술의 노래로 간주한다. 상상력을 통해 현실을 도피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나이팅게일의 세계에서 미를 추구하고자 했지만 “안녕”(adieu)이라고 말하면서 헛된 꿈이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제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슬픈 곡조의 노래가 되어 멀리 강과 들을 건너 깊은 골짜기에 묻힌다. “깊은 산골짜기에 묻어버리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세계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며, “묻어버리는”(buried)이라는 단어로 묘사하여 다시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을 수 없는 듯이 쓰고 있다. 마지막 두 구절은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즉 인간의 마음은 기쁨을 오래도록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자신의 객관적 실체를 자각했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송시」에서 1연의 나이팅게일은 실제 존재하는 새이다. 그러나 시가 진행해 감에 따라 자유, 순수한 기쁨, 상상력, 자연의 미, 이상 등의 상징이 되고 나이팅게일의 오묘한 선율은 화자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슬픔과 번뇌가 가득한 인간세계와 대조를 이루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흐르는 이상적인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는 기쁨을 선사하기 때문에 환상의 세계에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화자의 염원은 죽음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지만 이내 환상이 제공하는 세계의 허구성을 깨닫고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온다. 이처럼 환상의 세계가 궁극적인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현실 세계를 의식하는 순간 영혼의 잠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키츠는 나이팅게일을 매개체로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공상의 소리가 아닌 진정한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를 들은 후에 행복 속의 행복을 찾아 현실 세계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안을 보여준다.

3. 「그리스 항아리에 부치는 송시」 : 미와 진리

키츠의 송시 중에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리스 항아리에 부치는 송시」("Ode on a Grecian Urn")는 현실의 세계와 영원한 예술 세계의 조화를 다루는 시로 현실의 고통을 피해 완벽한 이상 세계인 영원한 예술 세계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²⁷⁾ 예술품이 지닌 영원한 미가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해주며 인간에게 위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노래한다. 예술품인 항아리의 미는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키츠는 우리 주변에서 미를 찾고 미가 행복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곧 진리임을 역설한다.²⁸⁾

총 5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 항아리에 부치는 송시」는 박물관에 있는 항아리를 관찰하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전개되며 항아리에 새겨진 소년과 젊은 연인들, 사제, 제물이 될 양 그리고 정적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의 모습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형상화시킨다. 화자는 대상과 합일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완벽하게 자신을 버리고 옛날부터 존재해 오고 있는 항아리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대 아직도 순결한 고요의 신부여,
그대 침묵과 느린 시간의 양자여,
우리의 시 보다 더 감미롭게
꽃다운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 숲 속의 역사가여,
어떤 것으로 가장 자리를 두른 전설이 네 주위를 감도는가?
그 전설은 신들에 관한 것인가, 인간에 관한 것인가? 모두에 관해서인가?
템페인가 혹은 아카디아의 골짜기인가?
이들은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신들일까? 어떤 처녀들이 수줍어하는가?
이 얼마나 미친듯한 추격인가? 얼마나 도망치려는 몸부림인가?
어떤 피리이며 어떤 북인가? 얼마나 격렬한 황홀함인가?

27) Claud L. Finney, *The Evolution of Keat's Poetry*. 2 vols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63), p. 637.

28) Bloom, *The Visionary Company*. p. 419.

Thou still unravish'd bride of quietness,
 Thou foster-child of silence and slow time,
 Sylvan historian, who canst thus express
 A flowery tale more sweetly than our rhyme:
 What leaf-fring'd legend haunts about thy shape
 Of deities or mortals, or of both,
 In Tempe or the dales of Arcady?
 What men or gods are these? What maidens loth?
 What mad pursuit? What struggle to escape?
 What pipes and timbrels? What wild ecstasy? (I , 1-10)

화자는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고 불멸의 미를 간직하는 향아리에게서 “미칠듯한 황홀감”을 느낀다. 향아리는 아직도 “순결한 고요의 신부”이면서 “침묵과 느린 시간의 양자”로 표현되며, 무시간의 영역 속에서 인간의 노래보다 아름다운 자연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숲의 역사가”이다. “고요함”(quietness)과 “침묵”(silence)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향아리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현실 세계와 비교할 때 향아리의 세계는 고요함과 침묵의 세계이다. 즉 현실세계가 순간적이고 가변적인 세계라면 향아리의 세계는 영원한 불변의 세계인 것이다. “고요한 신부”는 파괴되지 않은 세계를 나타내며 “침묵과 느린 시간의 양자”라고 표현한 것은 향아리를 만든 도예가는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의 세계에 속하는 느린 시간과 침묵을 부모로 모시는 것이다. 향아리가 자신의 표면에 묘사된 자연의 이야기를 언어로 된 시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 자체가 꽃에 대해 많은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기 때문에 숲의 역사가가 된 것이며, 역사가의 임무는 진실을 후세에게 전하는데 있으므로 숲의 역사가인 향아리는 자신의 표면에 진실을 기록한다.²⁹⁾

이 후, 향아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았던 화자의 시선은 그 속에 새겨진 조각 그림에 고정된다. 향아리는 쫓고 쫓기는 연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림은 고정되어 있지만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재구성 된다. 화자는 향아리가 담고

29) Brooks, *The Well Wrought Urn: Studies in The Structure of Poetry* (New York: Harcourt, 1947), p. 153.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연인들이 누구인지, 왜 그들이 쫓아가고 도망치는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그러나 향아리는 침묵을 유지한다. 마지막 행에는 예술의 상징인 피와 북을 등장시켜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연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상상한다. 지금까지는 화자가 향아리에 몰입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상과의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문문을 통해서도 아직까지는 향아리에 완벽하게 일치된 상태가 아님을 보여준다.

1연에서의 주체와 대상과의 만남은 2연과 3연에서 완성된다. 이제 향아리는 정지된 시간을 통해 영원성을 지닌 완전히 이상화된 대상이다. 화자는 향아리에 새겨진 그림을 통해 영원한 미와 진리에 대해 예찬한다.

들리는 멜로디는 아름답지만, 들리지 않는 멜로디는
 더욱 아름답다. 그러니 부드러운 피리들이여, 계속 연주해다오,
 감각의 귀에다 말고 더욱 소중하게
 영혼에게 소리 없는 노래를 불러다오.
 나무 아래 아름다운 젊은이여, 그대는 그대 노래를
 그칠 수 없고, 그 나무 또한 잎이 질 수 없다.
 대답한 연인이여, 그대는 결코, 결코 입 맞추지 못하리라,
 비록 목표에 닿을 듯하지만—하지만 비탄하지 마라.
 그대가 행복을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그녀는 시들지 않으리,
 영원히 그대는 사랑하고, 그녀는 아름다울 것이다!

Heard melodies are sweet, but those unheard
 Are sweeter; therefore, ye soft pipes, play on;
 Not to the sensual ear, but, more endear'd,
 Pipe to the spirit ditties of no tone:
 Fair youth, beneath the trees, thou canst not leave
 Thy song, nor ever can those trees be bare;
 Bold Lover, never, never canst thou kiss,
 Though winning near the goal yet, do not grieve;
 She cannot fade, though thou hast not thy bliss,

For ever wilt thou love, and she be fair! (II, 11-20)

“들리는 멜로디는 아름답지만 들리지 않는 멜로디도 아름답다”에 대해 블룸은 낭만주의 역설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라고 평한다.³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악일지언정 그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 듣는 사람의 귀에 들려오는 순간 곧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가 비록 향아리 표면에 그려진 사람이 피리를 부르는 소리를 실제로 듣지는 못하더라도 오직 상상력, 즉 “받아들이는 힘”에 의해 들리는 노래보다 더 감미롭게 들리며 영원히 들릴 수 있는 음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리는 멜로디도 감미롭지만 들리지 않는 멜로디는 더욱 감미롭기 때문에 사랑의 노래는 영원히 울려 퍼지고 연인들은 영원히 사랑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스 향아리에 새겨진 피리 부는 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더욱 감미롭고 선명하게 들리는 영원불멸의 멜로디가 인간의 마음을 한없이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상의 음악은 영원하고 아름다우며 실제 귀로 듣는 음악보다 더 신비스러운 것이다. 계속해서 향아리의 표면에 묘사된 인물들은 움직일 수 없지만 아름다운 젊은이의 노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랑놀이에 숨 가쁜 연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키스는 사랑의 완성으로 육체적 사랑은 끝나버리면 죽는 것이나 달아나려는 여인을 막 잡으려는 순간에 멈추어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랑은 완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랑의 형태는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영원히 그대는 사랑하고, 그녀는 아름다울 것이다!”를 통해 드디어 향아리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원히”라는 표현을 통해 연인들은 영원히 사랑하고 그녀는 영원히 늙지 않고 아름다울 것임을 말한다. 현실적인 사랑은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는 끝나버리고 말지만 향아리 속의 사랑은 상상력을 거치면서 영원한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

3연에서는 향아리 세계의 행복이 점점 강화되어 절정을 이룬다.

아, 행복하고 행복한 나뭇가지여! 그대는 잎을
떨어뜨리지도, 봄철에게 작별을 고하지도 않으니,
그리고 행복한 연주자여, 지치지 않고,

30) Bloom, *The Visionary Company*. p. 417.

영원히 새로운 노래를 피리불고 있으니,
 그보다 더욱 행복한 사랑, 한층 더 행복하고, 행복한 사랑이여!
 영원히 식지 않고 언제나 즐길 수 있으며
 영원히 숨 막히고 영원히 짧은 사랑
 슬픔으로 가득하고 쾌락에 물리게 하는 가슴과
 불타는 이마, 타오르는 혀를 남기는
 모든 숨 쉬는 인간의 정열을 초월한 사랑이여.

Ah, happy, happy boughs! that cannot shed
 Your leaves, nor ever bid the Spring adieu;
 And, happy melodist, unwearied,
 For ever piping songs for ever new;
 More happy love! more happy, happy love!
 For ever warm and still to be enjoy'd,
 For ever panting, and for ever young;
 All breathing human passion far above,
 That leaves a heart high-sorrowful and cloy'd,
 A burning forehead, and a parching tongue. (III, 21-30)

행복감으로 가득 찬 화자는 “행복하고, 행복한 가지들이여”, “행복한 멜로디여”, “더 행복한 사랑이여! 더 행복하고, 행복한 사랑이여!”와 같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프시케에 부치는 송시」와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송시」에서도 행복이란 단어의 반복은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대상과의 합일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듯이 이 연에서는 키츠가 진정한 행복의 경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자연, 예술, 사랑의 순서를 밟아야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자연물인 나뭇가지, 예술인 멜로디, 그리고 사랑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벽히 향아리 속으로 자신을 투사하고 향아리와 동일시하여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경지인 진리에 도달하여 향아리와 합일된 상태(oneness)를 형성한다. 화자는 향아리와 합일된 순간에 연인들의 열정을 느끼고 있지만 마지막 행의 “뜨거운 이마”(a burning forehead)와 “타오

르는 혀“(a parching tongue)는 현실적인 순간의 행복으로, 최고의 몰입 순간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연인들은 영원히 숨 가쁘게 갈망하는 상태로 있고 가까이 닿을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입 맞출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프시케에 부치는 송시」에서처럼 이 시의 연인들도 거의 입을 맞추는 듯 하지만 절정의 상태로 가지 못하고 정지된 상태로 남는다. 현실 세계에서의 삶은 무상한 것이며 또한 사랑도 육체적인 감각으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만 이러한 감각적인 맛을 느낀 뒤에는 곧 비애와 권태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향아리에 새겨진 연인들의 사랑과 노래는 비록 현실세계의 감각적인 맛은 볼 수 없지만 영원한 젊음과 미, 신선함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이다.

평범한 것에 불과한 향아리를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열정적인 연인들의 사랑을 담은 영원한 예술품으로 묘사하며 향아리에 몰입함으로써 인간 세계의 무상함을 잊었던 시는 4연에 와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 화자는 “어떤 푸른 제단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서 목적지를 묻고 있고 그들이 떠나온 출발지에 대해 상상한다.

제사 지내러 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오 신비스러운 사제여, 그대는 어느 푸른 제단으로
 하늘을 보고 우는 저 어린 송아지를
 비단 같은 옆구리에 온통 꽃다발로 장식하여 데리고 가는가?
 강가나 바닷가, 혹은 평화로운 요새가 있는
 산 위에 지어진 어떤 작은 마을이
 이 경건한 아침에 사람들이 텅 비어있는가?
 그리고 작은 마을이여, 당신의 거리는 영원히
 조용하리라.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돌아와서
 말하지 못하리라. 왜 당신이 텅 비게 되었는지를.

Who are these coming to the sacrifice?
 To what green altar, O mysterious priest,
 Lead'st thou that heifer lowing at the skies,
 And all her silken flanks with garlands drest?

What little town by river or sea shore,
 Or mountain-built with peaceful citadel,
 Is emptied of this folk, this pious morn?
 And, little town, thy streets for evermore
 Will silent be; and not a soul to tell
 Why thou art desolate, can e'er return. (IV, 31-40)

이제 향아리는 언제나 따사롭고 언제나 즐거운, 언제나 숨 가쁘고 영원히 젊은 인간의 열정을 담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텅 비고, 조용하며, 쓸쓸한 마음을 담은 대상으로 변한다. 이 장면에는 사제가 송아지를 푸른 제단으로 끌고 가고, 그 뒤에는 군중들이 따르며 그들이 출발한 작은 마을이 있다. 산 위에 지어졌거나 강가 혹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작은 마을은 한 사람도 없이, 텅 비어 쓸쓸하다. 이에 대해 키츠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경배자들의 행렬이 떠난 마을을 상상하게 되었고 그 마을은 결국 황폐하고 쓸쓸하며 혹시 어떤 나그네가 실제로 그 마을에 가서 그곳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리둥절하게 될 실제의 한 마을인 것처럼 처리한다.³¹⁾ 향아리에 그려진 인물들은 고정적인 속성으로 영원하지만 그 고정적 속성으로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기도 하다. 마을이 황폐해 있다는 것을 인식한 화자는 이제 향아리의 표면에 생생하게 묘사된 여러 가지 장면을 벗어나 향아리를 전체적인 대상으로 고찰하게 된다.

마지막 연에서 향아리는 화자와 완벽하게 거리를 두는 존재로, 향아리의 세계에서 “오, 아티카의 형상이여”라고 말하면서 현실로 돌아온다.

오, 아티카의 형상이여! 아름다운 자태여!
 숲의 나뭇가지들과 짓밟힌 잡초들로 온통 장식된
 대리석의 남자와 처녀들의 모습
 당신, 말없는 형상이여, 영원처럼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애타게 하는구나, 차가운 목가여!
 오랜 세월이 이 세대를 황폐하게 만들 때
 당신은 우리의 슬픔이 아닌, 다른 슬픔의 한 가운데서

31) Allot, p. 536.

인간에게 친구로 남아 이렇게 말하리,
“미는 진리며, 진리는 미이니,
이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는 전부요, 알 필요 있는 전부이다.”

O Attic shape! Fair attitude! with brede
Of marble men and maidens overwrought,
With forest branches and the trodden weed;
Thou, silent form, dost tease us out of thought
As doth eternity: Cold Pastoral!
When old age shall this generation waste,
Thou shalt remain, in midst of other woe
Than ours, a friend to man, to whom thou say'st,
“Beauty is truth, truth beauty,—that is all
Ye know on earth, and all ye need to know.” (V, 41-50)

“아티카의 형상”, “아름다운 자태”, “말없는 형상”, “차가운 목가”로 표현된 향아리는 이제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를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인들의 열정을 충만하게 담고 있던 향아리의 열기는 갑작스럽게 식어버리고 향아리는 더 이상 고요한 신부도, 시간의 양자도, 숲의 역사가도 아니다. 단지 차가운 목가로 우리 곁에 있을 뿐이다. 예술은 아름답고 영원하지만 현실과는 엄청난 괴리를 가지고 있기에 화자는 “받아들이는 힘”을 발휘하여 향아리와 동일시되지 못함으로써, 행복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의 슬픔의 한 가운데서 향아리는 “미는 진리요, 진리는 미이다. 이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는 전부요, 알 필요가 있는 전부이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미는 단순한 미가 아니라 삶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미인 것이다. 키츠에게 있어 미와 진리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바라보는 대상 속으로 무의식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사물의 정수(essence)를 꿰뚫어 볼 수 있고 그 속에 진리와 미가 존재하는 것이다. 완전한 것으로 알았던 것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미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만이 진리가 된다.

「그리스 향아리에 부치는 송시」를 통해 시인은 미와 진리의 영원성을 노래하며

현재가 영원히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대상과의 몰입, 대상과의 합일을 통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통, 죽음, 불안 등으로부터 도피를 꿈꾸지만 오히려 변화하는 현실과 고뇌를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향아리의 미는 예전부터 간직해 왔고 앞으로도 후세에 미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향아리의 미는 진리가 되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위안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키츠는 예술품의 영원한 미 속에서 영원한 현재의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며 자신의 시 역시도 영원히 우리에게 친구로 남아 삶의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 줄 것이라고 여긴다.

4. 「우수에 부치는 송시」 : 슬픔과 기쁨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송시」와 「그리스 향아리에 부치는 송시」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의 상징물인 나이팅게일과 예술품의 상징물인 향아리로 이상과 현실, 영원과 무상에 대해 보여주었다면, 「우수에 부치는 송시」("Ode on Melancholy")는 인간의 삶 속에 내재한 고통과 기쁨, 사랑과 죽음, 미와 추함 등을 다루면서 즐거움은 사라지는 것이며 최상의 기쁨은 항상 최상의 슬픔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재혼 한 가정에서 부모의 정을 모른 채 육체적 쇠약, 경제적 곤궁함, 유전성 폐병으로 인한 동생 탐의 죽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키츠에게 우수(melancholy)라는 주제는 작품 전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시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자연의 미와 감각의 미를 강렬하게 느껴 보려 하였으며, 그 순간 우울이 인간의 감정을 풍요롭게 가꾸어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순간적인 쾌락이나 환희는 부서지기 쉽고 변하기 쉽지만 인간에게 있어 행복 또한 어떠한 지점에 도달하고 난 뒤에는 피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인은 영혼의 고뇌를 깊이 탐색하며 미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 송시에서는 시인 자신이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하며 가상의 인물에게 훈계를 하는데, 1연은 슬픔과 고통을 회피하기 위하여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감각적 마비 상태의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아니, 아니, 망각의 강으로는 가지 마라,
독주를 얻으려고, 깊이 뿌리박힌 지아비꽃을 비틀지도 마라.
그대의 창백한 이마를 페르세포네의 주홍빛 포도인
가마중 독초에 입맞춤 받아 아프게 하지 마라.
네 주목 열매의 염주를 만들지도 말고
딱정벌레나 유골 나방이
네 슬퍼하는 프시케가 되게 하지도 마라.
숨털 덮인 올빼미가 알 수 없는 네 슬픔의 동반자가 되게 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너무나 졸리도록 찾아와
영혼의 잠 깬 고통을 익사시킬 것이기에.

No, no, go not to Lethe, neither twist
Wolf's-bane, tight-rooted, for its poisonous wine;
Nor suffer thy pale forehead to be kiss'd
By nightshade, ruby grape of Proserpine;
Make not your rosary of yew-berries,
Nor let the beetle, nor the death-moth be
Your mournful Psyche, nor the downy owl
A partner in your sorrow's mysteries;
For shade to shade will come too drowsily,
And drown the wakeful anguish of the soul. (I, 1-10)

여기에서 "no", "not", "neither" 등의 부정 어구는 현실의 도피나 망각으로의 유혹을 강하게 거절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망각의 강"이나 "독풀", "해골나방"과 "딱정벌레"등과 같은 단어들은 죽음이나 망각을 상징하는 슬픔의 극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인은 이러한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타이른다. 죽음과 망각 등의 이미지를 부정하는 이유는 "그림자가 그림자에게로 너무나 졸리게 찾아와"에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림자는 다가오는 무의식의 어둠을 의미하고 두 번째 그림자는 남아 있는 의식을 의미한다.³²⁾ 이러한 몽롱한 죽음의 의식 상태는 진정한 슬픔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죽음이나 망각의 상태에서는 진정한 슬픔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슬픔을 느끼기 위해서는 슬픔과 대조되는 기쁨, 미, 행복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환각의 상태는 오히려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키츠는 우수의 발작이 봄 소나기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며 이 때 우수를 회피하지 말고 그와 대조적인 미 속에서 우수를 실컷 느껴보라고 노래한다. 또한, 우울과 슬픔을 통해 현실의 기쁨, 미, 쾌락 등을 느끼며 미와 기쁨에 완전히 몰입함

32) Jeffrey Baker, *John Keats and Symbolism* (Sussex: Harvester, 1986), p. 157.

으로써 정신적으로 모든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러지 말고, 고개 숙인 온갖 꽃들을 양육하고
4월의 수의로 푸른 언덕을 가리는
우는 구름처럼, 하늘로부터 갑자기
우수의 발작이 쏟아질 때면,
그때는 아침 장미에서 그대의 슬픔을 맛보리라.
혹은 째짤한 모래 물결의 무지개에서
혹은 풍성한 둥근 작약 무리에서
혹은 그대의 연인이 몹시 화를 낸다면,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꼭 잡고, 그녀가 미친 듯이 소리치게 하라.
그리고 그녀의 비길 데 없는 눈을 깊이, 깊이 만끽하라.

But when the melancholy fit shall fall
Sudden from heaven like a weeping cloud,
That fosters the droop-headed flowers all,
And hides the green hill in an April shroud;
Then glut thy sorrow on a morning rose,
Or on the rainbow of the salt sand-wave,
Or on the wealth of globed peonies;
Or if thy mistress some rich anger shows,
Imprison her soft hand, and let her rave,
And feed deep, deep upon her peerless eyes. (II, 11-20)

우수를 "고개 숙인 꽃들", "4월의 수의"와 "우는 구름"으로 표현하며 슬픈 분위기를 이끌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표현은 봄 소나기처럼 생명을 가져다준다. 즉 키츠는 우수의 이미지가 소나기와 같이 생명을 주는 미를 주듯이 미의 경험이 우수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고 역설하며 기쁨과 고통이 공존함을 부각시킨다.³³⁾ 그리하여 이슬이 마르면 시들어버릴 장미, 모래의 물결 위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무지개, 풍성한 작약 등에서 우수를 느껴보라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화

33) Ronald Sharp, *Keats, Skepticism, and the Religion of Beauty* (Athens: U of Georgia P, 1979), p. 61.

사하고 아름답지만 그 미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우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가 절정에 달해 있는 대상물에게서 우수를 느껴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물들에게서조차 우수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이와 다뤄 연인이 화를 낸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두 손을 잡고 아름다운 두 눈을 바라보라고 말하는데, 이는 강렬하지만 순간적인 미에서 진정한 슬픔을 강렬하게 느껴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키츠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버릴 수 없음을 인식한 결과, 이러한 역설 속에서 자신이 처한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미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슬픔을 강렬하게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미를 느낄 수 있고 인생을 수궁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3연에서는 미는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어서 곧 추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기쁨 또한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에 곧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미와 슬픔이 공존할 때에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수는 미와 함께 산다, 죽어야만 하는 미와 함께,
그리고 작별을 고하느라 항상 그의 입술에 손을 대고 있는
기쁨과, 그리고 꿀벌의 입이 빨고 있는 사이에도
독으로 변해 버리는, 고통스런 쾌락 가까이에서.

She dwells with Beauty—Beauty that must die;
And Joy, whose hand is ever at his lips
Bidding adieu; and aching Pleasure nigh,
Turning to poison while the bee-mouth sips: (III, 21-24)

우수를 곧 사라져야 할 미로 묘사하며 사라질 수밖에 없는 미와 작별 인사를 고하는 쾌락은 우수의 또 다른 면모이다. 강렬하게 느끼는 쾌락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1819년 동생 조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삶의 기쁨을 느끼려는 순간 치명적인 독으로 변해버린다고 언급한데에서도 알 수 있다.

상황은 끊임없이 모여 터지는 구름과 같다. - 우리가 웃고 있는 동안에 어떤 곤경의 씨가 사건들의 넓은 경작지 안으로 들어오고 - 우리가 웃고 있는 동안에 그것은 싹을 내고 자라서 우리가 따내야 하는 독과일을 맺는다.(*Letters*, 177)

이처럼 미조차도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며, 인생도 영원하지 못하기에 더욱 기쁜 것이 되어야 한다.³⁴⁾ 키츠는 우리가 미와 환희, 쾌락 등을 체험하는 동안에도 그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낀 것이다.

아, 바로 환희의 신전에
베일 쓴 우수는 성전을 갖고 있어,
정력적인 혀로 기쁨의 포도를 그의 예민한 입천장에 대고
터트릴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볼 수가 없노라.
그의 영혼은 우수의 강력한 슬픔을 맛볼 것이고,
우수의 구름 낀 트로피들 사이에 매달려 있게 될 것이다.

Ay, in the very temple of Delight
Veil'd Melancholy has her sovran shrine,
Though seen of none save him whose strenuous tongue
Can burst Joy's grape against his palate fine;
His soul shalt taste the sadness of her might,
And be among her cloudy trophies hung. (III, 25-30)

“기쁨의 포도”는 남녀의 사랑의 결실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결실의 이미지와 달리 환희의 포도를 터뜨린 사람이 맛보는 것은 달콤함이 아니라 슬픔이다. 벤들러는 이 역설적인 형태로 표출된 상징적이고 인유적인 감각은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³⁵⁾ 감각을 통한 쾌락의 경험은 슬픔을 낳고 그 슬픔은 오히려 지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희의 포도를 터뜨린 사람은 달콤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통렬한 슬픔을 맛보게 되며 베일 쓴 우수의 성전에 도달하게 되

34) Kenneth Muir, ed, *The Meaning of the Odes in John Keats: A Reassessment* (Liverpool: Liverpool UP, 1969), p. 73.

35) Vendler, p. 184.

는 것이다. 즐거움의 신전 속에 우수가 존재한다는 역설을 통해 인생의 미도 찰나에 불과하며 곧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함을 제시한다.

키츠는 「우수에 부치는 송시」를 통해 진정한 슬픔의 본질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미, 즐거움 혹은 쾌락 등을 강력하게 느껴보라고 말한다.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온갖 경험들은 일시적이고 덧없지만 슬픔과 행복이 공존한다는 깨달음을 지니면 기쁨의 포도와 같은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 속에서 삶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여 수용함으로써 삶의 복잡성을 터득할 수 있으며 즐거움과 슬픔, 이상과 현실, 영원함과 순간, 삶과 죽음등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5. 「가을에게」 : 충만과 공허

키츠에게 자연은 늘 푸른 세계이며 정신적 상처를 달래주는 치유제이다. 「가을에게」("To Autumn")는 가을의 한 정경과 분위기를 묘사한 시로 키츠가 자연에 담고자 했던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다. 이 시는 키츠의 송시 중 가장 위대한 송시이자 키츠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으며 가장 성숙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완벽한 시로 평가받는 이 송시는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대신, 키츠는 가을이라는 자연을 의인화시켜 그 속에서의 성장과 사멸, 삶과 죽음, 충만함과 공허함이 뒤섞여 있는 가을 들뜰에 자기 자신을 융화시켜 표현한다. 시에 화자인 "나"를 등장시키지 않음으로써 시인의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정서를 자유자재로 결합시키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가을이라는 대상에 투사된 상상력이 자유자재의 변형을 통해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게 되는데, 가을은 여름과 겨울 사이의 계절로 성숙과 무르익음 등의 자연의 역동적인 힘을 느끼게 하며 다가오는 겨울의 냉혹함을 암시하고 다시 겨울 이후에 봄이라는 생동의 계절이 있음을 통해 자연 순환의 한 부분이 된다.

키츠가 이 시를 쓸 당시는 동생 톰의 죽음 이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했던 시기였으며 거의 매일같이 들뜰 주위를 산책하면서 가을의 풍성한 모습과 누렇게 익어가는 평화스런 모습에서 지난날의 시련과 고통을 잊을 수가 없던 시기였다. 1819년 레이놀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키츠는 「가을에게」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힌다.

지금 이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 공기도 상쾌하고, 기온도 산뜻하다. 진실로 - 맑은 하늘 - 봄의 차가운 녹색 들뜰보다 훨씬 좋네 - 어쨌든 그루터기가 있는 들뜰은 따뜻해 보인다네. 그것과 똑같이 저 풍경들도 따뜻해 보이네 - 이러한 모습이 나의 일요일 산책길에 너무 깊은 인상을 주어서 나는 이 시를 지었네.(*Letters*, 235)

키츠는 이 송시에서 평범한 사물을 시의 소재로 삼아 객관적 입장에서 가을 경치

를 그대로 내보이고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그 자연과 완전한 합일을 이룸으로써 특정한 대상물이 아닌 자연 속에서 삶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미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진정한 미란 모든 사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암시한다.

키츠가 미의 의미를 느끼는 과정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는 힘”의 양상이 드러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1연은 가을을 추수 직전의 풍요로움이 절정에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안개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
성숙시키는 태양의 절친한 친구여,
태양과 공모하여 초가집 처마를 감은 포도나무를
열매로 짐 지우고 축복하고
이끼 낀 시골집 나무들을 사과들로 휘어지게 하고
온갖 열매를 핵심까지 익게 하고
박을 부풀게 하고, 개암껍질을
달콤한 인으로 굶게 하고, 꿀벌을 위해
늦게 피는 꽃들을 더욱 더 피게 하는구나,
꿀벌들이 따뜻한 날이 결코 그치지 않으리라 생각할 때까지,
여름이 끈적끈적한 벌집들을 넘쳐흐르게 하였기에.

Season of mists and mellow fruitfulness,
Close bosom-friend of the maturing sun;
Conspiring with him how to load and bless
With fruit the vines that round the thatch-eaves run;
To bend with apples the moss'd cottage-trees,
And fill all fruit with ripeness to the core;
To swell the gourd, and plump the hazel shells
With a sweet kernel; to set budding more,
And still more, later flowers for the bees,
Until they think warm days will never cease,
For summer has o'er-brimm'd their clammy cells. (I , 1-11)

가을이 태양과 공모하여 사물을 무르익게 하는 과정이 의인화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모든 것을 익게 하며 성숙시키는 태양,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 부푼 박, 가지를 휘게 할 정도로 익은 사과, 달콤한 인으로 곱어진 개암, 그리고 가을 준비에 바쁜 꿀벌들을 통해 풍요로움을 보여준다. 또한 “늦게 피는 꽃들”이 벌을 속여 벌로 하여금 풍요로움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그러나 키츠는 첫행에서 가을을 “안개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로 부르며 가을을 양면적 존재로 의인화하는데, 여기서 안개는 그것이 지닌 불확실성과 모호함으로 풍성함의 계절 이면에 다가올 겨울 즉, 쇠퇴와 죽음의 이미지를 내포한다. 이는 레이놀즈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요한 사고의 방”(Chamber of Maiden thought)이 어두워진 이후로 어두운 통로로 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선악의 구별도 할 수 없이 안개 속에 있다(Letters, 103)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성장이라는 여름의 속성으로 가득 찬 가을의 모습에서 우울함을 던져버릴 수 없는 것은 풍요롭고 긍정적인 가을의 모습 뿐 아니라 부정적 가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런 가을의 이중적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주체는 시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시인의 자아와 가을이라는 객체 사이에 어떠한 분열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 오히려 자아가 소멸되고 대상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키츠의 “받아들이는 힘”인 것이다.

2연에서는 1연의 성숙 과정이 맺은 결과에 대해 노래한다.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가을이 여성으로 의인화 되고 추수의 장면과 여유로움을 통해 고요하고 느긋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누가 네 수확물 속에서 너를 자주 보지 못했을까?
 때때로 집 밖에서 찾는 사람은 누구나 보았겠지,
 곡물창고 바닥에 태평스레 앉아
 키질하는 바람에 머리칼을 부드럽이 나부끼는 너를,
 혹은 네 낮이 다음에 벨 풀과 온갖 꼬인 꽃들을
 아껴 두는 동안 양귀비 향연으로 즐려
 반쯤 벤 이랑에 깊이 잠든 너를,
 그리고 때때로 이삭 줍는 사람처럼 너는

짐을 진 머리를 개울너머로 향하게 하고 있네.
혹은 사이다 압축기 곁에서 참을성 있는 표정으로,
너는 지켜보고 있네, 마지막 방울을 몇 시간이고.

Who hath not seen thee oft amid thy store?
Sometimes whoever seeks abroad may find
Thee sitting careless on a granary floor,
Thy hair soft-lifted by the winnowing wind;
Or on a half-reap'd furrow sound asleep,
Drows'd with the fume of poppies, while thy hook
Spares the next swath and all its twined flowers:
And sometimes like a gleaner thou dost keep
Steady thy laden head across a brook;
Or by a cyder-press, with patient look,
Thou watchest the last oozings hours by hours. (II, 12-22)

여성으로 의인화 된 가을은 곡간 마루에 머리카락 날리며 앉아 있거나, 발두렁에
곤히 잠들어 있고 이삭 줍는 사람처럼 개울 너머로 무거운 머리를 버티고 있거나,
사과술 압축기 옆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방울까지 몇 시간이고 지켜보는 행
위를 취하며 휴식을 취한다. “반쯤 베어 놓은 이랑”을 통해 풍성함에서 오는 여유
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암시하면서 아직 가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
는 시인의 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이다 압축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방울까지
지켜보는 행위는 인생에 있어 기다리는 보람과 삶의 희망을 함축한다. 동시에 “마
지막 방울”이란 표현에는 가을의 쇠퇴와 한 해의 다가오는 죽음을 암시한다.³⁶⁾ 이
처럼 가을은 두 개의 상반된 개념 사이에 있는 경계로 삶과 죽음, 충만함과 공허,
절망과 희망이 공존되어 있는 상황이다.

3연은 “봄의 노래들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쇠퇴 후에는 생명의 탄생
과 성숙이 되돌아온다는 순환의 원리를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6) Bate, p. 583.

어디에 있는가 봄의 노래는? 아, 어디에 있는가?
 봄의 노래를 생각지 말라, 너는 네 노래 갖고 있으니, --
 줄무늬 구름들이 조용히 저물어가는 낮을 석양으로 물들이고
 그루터기 들판을 장미색으로 적시는 동안,
 그때 애조 띤 합창으로 작은 각다귀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네.
 강가의 버드나무들 사이에서, 가벼운 바람이
 일거나 죽음에 따라 높게, 낮게 불려가며
 그리고 다 큰 양들이 언덕 언저리에서 요란이 울고
 여치들이 노래하네. 그리고 지금 부드러운 고음으로
 방울새가 낙원에서 휘파람 불고
 하늘엔 제비들이 모여 지저귀네.

Where are the songs of spring? Ay, Where are they?
 Think not of them, thou hast thy music too,—
 While barred clouds bloom the soft-dying day,
 And touch the stubble-plains with rosy hue;
 Then in a wailful choir the small gnats mourn
 Among the river swallows, borne aloft
 Or sinking as the light wind lives or dies;
 And full-grown lambs loud bleat from hilly bourn;
 Hedge-crickets sing; and now with treble soft
 The red-breast whistles from a garden-croft;
 And gathering swallows twitter in the skies. (III, 23-33)

추수가 끝난 뒤 황금들판이 그루터기 들판으로 바뀌어 질 때, 작은 각다귀들이 부르는 애도의 노래는 멀어져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시 전체에 애잔한 분위기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봄의 노래를 찾고 있는 태도는 덧없는 본질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³⁷⁾ 이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 겨울의 문턱에서 지난봄을 돌이켜 봄으로써 현재와 과거의 의미를 파악하고 동시에 현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레이놀즈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싹할 정

37) Waldoff, p. 160.

도로 추운 봄 대신에 가을은 더욱 따뜻하다(*Letters*, 235)고 말했듯이 봄의 노래를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가을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렸던 구름은 조용히 저물어가는 하루를 석양으로 물들이며,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죽어가는 그루터기 들판은 장밋빛으로 가득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 큰 어린양들”의 우렁찬 울음은 다가올 봄에 보게 될 희망을 암시한다. 어린양들을 통해 과거인 봄을 생각하게 하면서도 “다 큰”이라는 표현은 가을의 성숙하고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풍요로운 현재의 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행의 지저귀며 모여드는 제비는 겨울을 피해 멀리 날아가는 모습이기도 다가오는 겨울의 모습을 형상화시킨다. 그러면서 동시에 봄이면 이 제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점에서 자연의 순환을 보여주며 삶 또한 연속적인 순환의 과정으로 보고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가을에게」는 가을을 의인화하여 가을 풍경과 자연의미를 노래하면서 1연을 성숙으로 시작하여 3연의 소멸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숙과 소멸은 서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룬다. 키츠는 계절의 순환과 자신의 삶의 과정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인간의 궁극적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마저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송시에서는 모든 사물에서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미가 삶의 고통을 극복하게 해 주며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는 키츠의 신념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가을에게」를 통해 키츠는 가을 풍경에서 보여주는 슬픔과 행복, 죽음과 불멸 등 서로 상반되는 모든 요소들의 조화 속에 미를 찾아 그 자체에 대한 깊은 명상과 통찰을 통해 풍요로운 미를 느끼고, 삶의 순환과정이 현실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IV. 결 론

키츠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인간의 삶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이다. 그의 가정적 불행과 정신적 고통 등의 불운한 삶이 인간의 고통과 행복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이다. 그는 시란 인간의 마음속에서 고뇌와 투쟁을 찾는 여정임을 밝히며 고통스러운 인간의 세계에 직면하여 시를 매개로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따라서 시를 씀으로써 일상생활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현실 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위안과 행복을 찾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를 위해 키츠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이러한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 대신에 자신의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모든 사물에서 미를 포착함으로써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에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한다. 즉, "받아들이는 힘"은 고통을 극복하고 긍정적 삶을 지향하는 태도이며 자신을 버리고 대상과 합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키츠가 추구하는 미와 진리의 포착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다. 또한 키츠는 행복에 대한 단순한 관념보다는 그 이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불행을 생각하였고 환희 속에서 다가오는 우울함 그리고 기쁨 이면의 고통 등 인생의 상반된 요소 등을 시에 담아낸다.

키츠는 상상력을 통해 미를 추구하고 현실의 갈등과 고통을 해결해보려는 시도를 그의 송사에서 구체화시켜 형상화한다. 키츠의 시세계는 꿈과 쾌락 등을 상징하는 이상적인 세계와 고통과 시련 등의 현실세계를 그리면서 궁극적으로 고통과 시련, 슬픔 등을 포용하는 세계로 요약된다. 우선, 「프시케에 부치는 송시」는 다른 송시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긍정적이며 감각적인 미가 잘 나타나 있다. 키츠는 프시케의 신화를 "받아들이는 힘"으로 재창조해가는 과정에서 프시케와 큐피드의 결합을 통해 즐거움과 슬픔과 같은 인생의 참모습에 대한 시각을 얻게 된다. 이 송시는 현실세계의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다음 네 편의 송시들로 이어지는 첫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힘이라는 창조적 능력을 통해 현실 수용을 위한 자신의 내적인 성장의 근간을 마련한다.

「나이팅게일에 부치는 송시」에서는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에 취해 술

과 노래, 춤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이상세계를 쫓아 안락한 죽음으로 깊어가던 상태가 오히려 시인으로 하여금 나이팅게일과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게 하여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노래한다. 결국 이상 세계도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 곳이며 진정한 미는 변화와 쇠퇴를 초월하여 인간의 마음을 위로함을 역설한다.

「그리스 향아리에 부치는 송시」는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그리스 향아리 표면에 새겨진 그림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미를 포착하고, 이를 통해 현실 세계의 고통을 극복하고 삶의 위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 즉,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변하고 소멸하는 현실 속에서 향아리에 새겨진 연인들의 사랑과 노래와 같은 예술의 불멸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치시키며 미의 영원성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와 고대 예술품인 향아리의 미가 영원히 존재하는 이상세계는 인간 삶의 따뜻함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팅게일의 세계는 헛된 꿈이 되고 그리스 향아리는 차가운 목가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요소들이 공존한다는 역설은 「우수에 부치는 송시」와 「가을에게」에서도 강하게 표명된다. 「우수에 부치는 송시」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환희는 사라지기 쉬우며 동시에 슬픔이나 고통은 모두 인간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 현실의 우수는 망각이나 죽음과 같은 부정적 요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와 기쁨이 연결되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음을 자각한다. 따라서 모든 기쁨과 행복의 근원에는 보이지 않는 우울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최고의 기쁨을 만끽한 자만이 우수의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삶을 얘기한다. 미는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기에 현실에서 쾌락으로만 이루어진 미보다는 쾌락과 고통이 공존하는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태도는 「가을에게」에서도 이어진다. 가을의 계절적 순환을 통해 삶도 하나의 순환과정으로 인식하며 사라지는 것이 곧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한다.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풍요로운 가을 풍경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풍요로움이 지나 쇠퇴하는 서로 상반되는 모순을 경험하면서 삶과 죽음, 성장과 소멸, 기쁨과 슬픔이 어떠한 충돌 없이 존재함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세계의 고통과 무상함도 삶의 순환 과정 중 일부로 느낌으로써 유한한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결론적으로 키츠는 다섯 편의 송시에서 모든 사물에서 “받아들이는 힘”을 통해 포착된 미와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통해 순간적인 미를 영원한 미로 승화시키고 이를 삶의 순환의 과정으로 나타낸다. 그리하여 슬픔과 고통은 아름다운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의 삶은 성숙한 영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며 인간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견디고 고통을 극복하며 삶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참고 문헌

- 권영탁. 설태수공저. 『영국낭만시의 이해와 감상』. 서울: 형설출판사, 2000.
- 길호욱. 「John Keats의 Odes에 나타난 미의 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0.
- 김달용. 「John Keats's "Negative Capability"」. 영어영문학21, Vol.7, 1990.
- 김우창. 『가을에 부쳐』. 서울: 민음사, 1976.
- 김진규. 「John Keats의 Ode에 나타난 미(美)의 연구」. 현대영어문학, Vol.15 No.1, 1997.
- 라혜원. 「존 키츠의 송시에 나타난 미」.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박길면. 「존 키츠의 시에 나타난 상상력과 미의 추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4.
- 양순덕. 「John Keats의 시적 상상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2.
- 윤명옥. 『존 키츠의 시세계』. 대전: 도서출판 다래, 1998.
- 이은아. <존 키츠의 「그리스 향아리에 부치는 송시」-그리스 향아리의 진실, 그리고 그 이면>, 새한영어영문학, 제53권 1호, 2011.
- 이정호. 『영국낭만기 문학 새로 읽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_____. 『키츠 시의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_____. <키츠의 마음비우기의 시한과 작가의 죽음>. 강대건 편, 『영미시의 수정주의적 접근』 서울: 한신문화사, 1995.
- 이현의. 「존 키츠의 송시(Odes)에 나타난 미의 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정석권. 「존 키츠의 송시에 나타난 상상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2001.
- 정주애. 「존 키츠의 송시(Odes)에 나타난 고통의 치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Abrams, M. H, ed.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5th ed. Vol.2. New York: Norton, 1986.
- _____.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4th ed. New York: Norton, 1981.
- Allot, Miriam, ed. *John Keats: The Complete Poems*. London: Longman, 1986.
- Bate, W. Jackson. *John Keats*. Cambridge. Mass.: Harvard UP, 1979.
- Baker, Jeffrey. *John Keats and Symbolism*. Sussex: Harvester, 1986.
- Bradley, A. C. *Oxford Lectures on Poetry*. London: Macmillan & Co., Ltd. 1955.
- Bloom, Harold. *The Visionary Company: A Reading of English Romantic Poetry*. Ithaca: Cornell UP, 1971.
- _____. *The Odes of Keats*. New York: Chelsea House Pub., 1987.
- Bowra, Maurice. *The Romantic Imagination*. Oxford: Oxford UP, 1949.
- Bridges, Robert. "The Odes." *John Keats: Odes*. Ed. G. S. Fraser. London: Macmillan, 1971.
- Brooks, Cleanth. *The Well Wrought Urn: Studies in The Structure of Poetry*. New York: Harcourt, 1947.
- _____. *Modern Poetry and the Tradition*. New York: Oxford UP, 1965.
- Brooks, Cleanth, and Robert Penn Warren. Eds. *Understanding Poet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 Bush, Douglas. *John Keats: His Life and Writings*. New York: Collier Books, 1966.
- D'Avanzo, Mario K. *Keats's Metaphors for the Poetic Imagination*. Durham: Duke UP, 1967.
- Dickstein, Morris. *Keats and His Poetry: A Study in Development*,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Finney, Claud L. *The Evolution of Keat's Poetry*. Vol.2.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63.
- Gilbert, Elliot. *The Poetry of John Keat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5.
- Gleckner, Robert F. and Gerald E. Enscoe. Eds. *Romanticism: Points of View*. Detroit: Wayne State UP, 1975.
- Godfrey, Clarice. "Endymion." *John Keats: A Reassessment*. Ed. K. Muir. Liverpool:

- Liverpool UP. 1958. 20-38.
- Hirst, Wolf Z. *John Keats*. Boston: Twayne, 1981.
- Keats, John. *Letters of John Keats to His Family and Friends*. Ed. Sidney Colvin. London: Macmillan, 1891.
- Muir, Kenneth, ed. *The Meaning of the Odes in John Keats: A Reassessment*. Liverpool: Liverpool UP, 1969.
- Murry, John Middleton. *Keats and Shakespeare*. London: Oxford UP, 1925.
- Noyes, Russell. *English Romantic Poetry and Prose*. New York : Oxford UP, 1972.
- Sharp, Ronald. *Keats, Skepticism, and the Religion of Beauty*. Athens: U of Georgia P, 1979.
- Sperry, Stuart. *Keats the Poet*. Princeton: Princeton UP, 1973.
- Stillinger, Jack. "Keats." *The English Romantic Poets: A Review of Research and Criticism*. 4th edition. Ed. Frank Jordan. New York: MLA, 1985.
- Vendler, Helen. *The Odes of John Keats*. Cambridge: Harvard UP, 1983.
- Waldoff, Leon. *Keats and the Silent Work of Imagination*. Urbana Champagne: University of Illinois P, 1985.
- Wasserman, Earl R. *The Finer Tone*.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67.

<Abstract>

A Study on Imagination and Beauty in John Keats's Odes

Kim, Sihyun

Supervised by Professor *Hur, Yoondeok*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John Keats(1795-1821) was a poet who created great works only for four years and he thought over how he could give hope and courage to a life with imagination. For this purpose, Keats was trying to find the beauty in all the things on earth. He was to seek the permanent beauty and truth, which give human being happiness and consolation.

Then I can find those aspects in his five odes, written in 1819 and examine how to take and find comfort as well as happiness in real life. In his odes, "Beauty" appears with imagination in various forms. For Keats, like all the Romantics, imagination is the creative power which bridges the gap between the ideal world and the real world. He introduced the term, "Negative Capability", which means that a man is capable of being in uncertainties, mysteries, doubts, without any irritable reaching after fact and reason.

In *Ode to Psyche*, Keats restores Psyche who became a goddess after enduring much pain. He internalizes her as the presider of his soul-making within the untrodden region of his mind. In *Ode to a Nightingale*, he has a strong tendency to escape from the painful reality, then he is led by the nightingale's song through negative capability but he turns back to reality with a more mature self-consciousness. In *Ode on a Grecian Urn*, he comes to realize the limitless nature of art and the truth of the present. That is, only the beauty depicted in this urn could be everlasting through the limitless nature of the art form. The sense of art is a desire to be freed from reality. In *Ode on Melancholy*, he shows that we come to feel happiness, beauty, and pleasure as we feel the sense of melancholy. In *To*

Autumn, he takes his mortality itself as a part of nature, revealing life and death, growth and extinction, and fruitfulness and emptiness. Therefore, through his sorrow and happiness, he comes to acknowledge and accept that hardship is just a natural part of life.

In conclusion, for Keats, nothing but beauty can be everlasting. Through his works he shows various mental practices to overcome the pain and hardship in the present. The immortal beauty taken from the negative capability is the only thing that could overcome human agonies and troubles. Keats gives human being consolation, pleasure, and an overcome from reality by delivering the beauty and truth.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6.